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도미니카공화국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도미니카공화국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사업 기획 및 관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CID)	전홍택(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이태희(관리 PM, 정책자문·기획실장) 최은지(정책자문실 전문연구원)
도미니카공화국 사업 수행: 미래와세계	송윤정(미래와세계) 김연주(미래와세계)
도미니카공화국 사업 연구진 및 현지 전문가	오영교(수석고문, 미래와세계 이사장) 이선인(PM, 미래와세계 부이사장) 이홍식(고려대학교 교수) 한재준(인하대학교 교수) Maricell Silverstre(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 CEI-RD) Gustavo Diaz(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 CEI-RD)
현지 협력기관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CEI-RD)

본 보고서는 영문보고서를 축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nowledge
Sharing
Program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521-01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도미니카공화국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DI 한국개발연구원

F&G
미래와세계

Preface

서문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한 경제발전경험공유(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사업은 한국을 방문한 도미니카공화국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를 요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도미니카공화국을 중남미 제1호 KSP 대상국으로 선정하였고, 2008년부터 도미니카공화국 KSP 사업이 시작되었다.

2013년에 제6차 KSP를 시행함에 있어, 도미니카공화국 산업의 수출역량 강화라는 대주제 하에, 수출금융기구 설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무역센터의 개발 및 출범이라는 2개의 소주제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 6월부터 약 11개월에 걸쳐 정책자문 수요조사, 현지 협력기관 선정, 주제별 세부 실태조사,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 등을 진행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 정책담당기관인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 청장 및 직원,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마련된 최종안은 현지에서 열린 고위정책대화와 최종보고회를 통해 발표되었다.

본 보고서는 미래와세계가 국내 관련분야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행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으며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금융기구 설립과 관련하여 현재의 담보부 대출 영업에서 실질적인 신용장 내지 및 과거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금융으로의 전환, 수출금융 건당 대출규모 확대 및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의 직접대출 시행 등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미니카 공화국 무역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무역센터의 입지조건, 무역센터와 산업정책과의 연계, 무역센터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과 무역센터 건립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발간을 앞두고, KSP에 참여하여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의 공유를 위해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연구진과, 또 모든 단계에서 협조를 하여 주신 도미니카공화국의 협력기관 및 현지 전문가분들에게 감사사를 표한다. 아울러 보고서의 중간 및 완성 단계에서 값진 조언을 해주신 검토자와 자문위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KSP 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며 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구성원들의 노력에도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2014년 8월
미래와세계 이사장
오 영 교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개요 8

도미니카공화국 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도미니카공화국 KSP 사업의 진행과정 62
 도미니카공화국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68
 총론 71

제1장 수출금융기구 설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74
 제1절 서론 75
 제2절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개발은행의 역할 77
 제3절 도미니카공화국 수출금융기구 설립 자문 88
 참고문헌 95

제2장 무역센터의 개발 및 출범 96
 제1절 서론 97
 제2절 도미니카공화국 경제현황 및 특징 99
 제3절 무역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한국의 경험 102
 제4절 무역센터 건립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121
 제5절 결론 125
 참고문헌 127

Contents | 표목차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추진 실적	11
〈표 2〉	2013년 KSP 정책자문사업 외부 사업수행기관	13
〈표 3〉	KSP 사업 추진체계	18
〈부표 1〉	2004~13년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연구주제 및 연구진	27
〈표 1〉	각 연도별 도미니카공화국 KSP 주제	63
〈표 2〉	도미니카공화국 KSP 연구주제	64
〈표 3〉	주제별 연구진	64
〈표 4〉	현지컨설턴트 명단	65
〈표 1-1〉	예금은행의 무역금융 공급 추이	79
〈표 1-2〉	예금은행의 무역금융 공급 추이	81
〈표 1-3〉	은행별 국민투자기금 집행 실적	81
〈표 1-4〉	중화학공업에 대한 국민투자기금 대출금 비중	82
〈표 2-1〉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경제지표	99
〈표 2-2〉	도미니카공화국 교역품목별 수출통계	100
〈표 2-3〉	한국 무역의 주요 연도별 추이(1960년~2008년)	106
〈표 2-4〉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비교현황	108
〈표 2-5〉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실적	108
〈표 2-6〉	교육훈련비 비중추이	110
〈표 2-7〉	전자무역 이용 실적 및 수출 신장 기여도	111
〈표 2-8〉	도미니카공화국의 교역품목별 수출 통계	112
〈표 2-9〉	도미니카공화국 5대 수출대상국(FOB 기준)	112
〈표 2-10〉	관광업의 경제적 기여	113
〈표 2-11〉	전시컨벤션 참가자 소비 및 체재기간	118
〈표 2-12〉	총사업비 현황	121
〈표 2-13〉	컨텍스 건립방안	123
〈표 2-14〉	도미니카공화국의 규모별 수출 기업 수	123

Contents | 그림목차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 협력 체계도: KDI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	20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추진 단계	22
[그림 3]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진행 단계	23
[그림 1-1]	한국경제의 수출 및 수입 추이	82
[그림 1-2]	도미니카공화국 수출금융기구의 발전전략	92
[그림 2-1]	도미니카공화국 상품수출 증가율(기준: Free on Board, FOB)	100
[그림 2-2]	경제개방 확대에 의한 소득증대	102
[그림 2-3]	전시산업의 파급효과	104
[그림 2-4]	국내 식품제조업 생산업 추이	108
[그림 2-5]	한국 전시산업의 성장추세	109
[그림 2-6]	관광업에 의한 소득변화	113
[그림 2-7]	무역 아카데미 개념도	114
[그림 2-8]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CEI-RD) 조직도	120



2013

(KSP)

1)

제1절 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1982 (KDI) (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 IDEP), 1987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1991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²⁾

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가 가,

KDI 2004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1) 2011 2010 가 가 (KSP) '2011 (KSP) ,

2) 30 . 1963 (USAID) , 1965 가 , 1980 , 1967 가 가

7)

8)

2013

가 KSP

1990

가

(場)

가

가

가

가

가

GIRESOL

9)

Embrapa

가 ,

10)

7) KSP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esource flows)

ODA

(Grant Element) 0.25

8)

9)

10)

Embrapa

Morris et al.(2009)

Cerrado

4

60%

6

(2011)

가

11)

(conditional cash transfer)¹²⁾

G20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13)

(South - South Cooperation)

KSP

가

2010

G20

, G20

9

(pillar)

(knowledge sharing)

14)

< 1> KSP 가

(:)				
	가			
2004	2	,	-	10
2005	2	,	-	10
2006	4	,	,	8
2007	5	,	, 가	15
2008	8	, (),	,	25
2009	10	,	—, , , , 가 (),	50
2010	15	UAE, DR , , ,	—, —, —, , 가 , , ()	73.5

11)

(Grameen Bank)

2006

. Yunus(2003)

12)

Opportunity New York City Family Rewards Program

. Fiszbein et

al.(2009)

13)

G8

G20

Kharas(2010) . 1990

93%가

가

2007 ~ 08

72%가

. Sumner(2010)

14)

9

(infrastructure),

(growth with resilience),

. G20

Winters, Lim, Hanmer, and Augustin(2010)

	()
	IT
	()
	()
가	
	()
가	KPMG
	가 ()
	KPMG
DR	()
	()
	()
	()

KSP

20

¹⁵⁾

100

가

KSP

ODA

OECD

G20

¹⁶⁾

KOICA

EDCF

제2절 사업 목적과 특성

KSP

가

가

, KSP

가

가

가

(ownership)

가

가

가

¹⁵⁾

¹⁶⁾ ODA

KSP ODA

가

SaKong and Koh(2010)

OECD-DAC

, KSP

ODA

KSP

가 .¹⁷⁾ ,

, KSP ‘ ‘ ,

가가

가

가

. KSP가 .

. KSP

가

(KIST)

()

가 KSP

KSP

가

‘ ‘ ,

, KSP

가

‘ ‘ ,

가

가

가

‘ ‘ .

, ODA

가

KSP

가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가

(demand - oriented customized project)

(integrated approach)

17) OECD

(peer review)

가(mutual assessment)

(comprehensive program)

가 , 가

KSP

KSP

2009 2010

2020 , 2004 KSP

5 (Vietnam Development Bank) 2006

2009 KSP

EDCF 가

2013 KSP (Myanmar Development Institute: MDI) KOICA MDI

KSP 가

, EDCF KOICA

가

KSP 가

제3절 사업 추진체계와 주체 및 역할

KSP

KDI 가

KDI

, KDI , KSP

KDI 2004 2013 가

, KDI 2011 KSP

. 2013

KSP . . . KDI 가

. KDI 1 .

(Program Manager: PM) (Program Officer: PO)

. . . (PM)

, , . . 가 ,

. . .

(Project Manager: PM)

(), 가(Local

Consultant) . PM 3 6

가

(PM) .

. PM .

가 가 , 가

. KDI 1) , 2) , 3)

PM . PM , ,

, 15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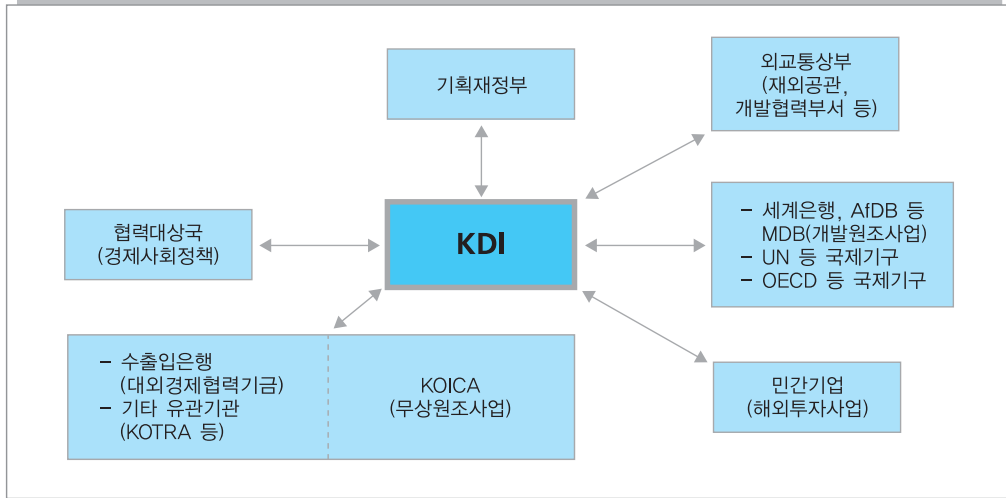
< 3> KSP

2004	(,)	KDI (IDEP)
2005	(,)	KDI (KDI IDEP)
2006	(,)	KDI
	· (,)	, KDI , ,
2007	(, , 가)	KDI KDI
	()	KIEP
	· ()	,
2008	()	KDI
	()	KDS
	· ()	,
2009	()	KDI ()
	()	KDS
2010 ~ 11		KDI
2011 ~ 12		KDI ()
		KDI
		()
2013		KDI ()
		KDI
		()

PM 가 KDI가 5

KSP

. 1 가 , , , ,
 PM PM 가 ,
 . , PM
 KSP
 . ,
 . KDI
 PM 가 1) , 2) , 3) .
 , 가 ,
 . KSP가 ,
 . KSP 가 가 , 가 ,
 가 가 가 2009 가 가 , 2008
 가 가 가 2008 KSP 가
 , 2009 가 가
 가 가 .
 [1]
 KOTRA , IMF
 , KSP ,
 KOICA
 . ,
 (, , NGO)
 (,)



제4절 사업 내용과 유형 및 진행단계

가.

KSP 가 , ‘ (Policy Research)’

, ‘ (Policy Consultation)’

가 , ‘ (Capacity Building)’

가 , ‘ (Dissemination)’

KSP

2009 3 KSP 10 가

2009 KSP 2009 가

, K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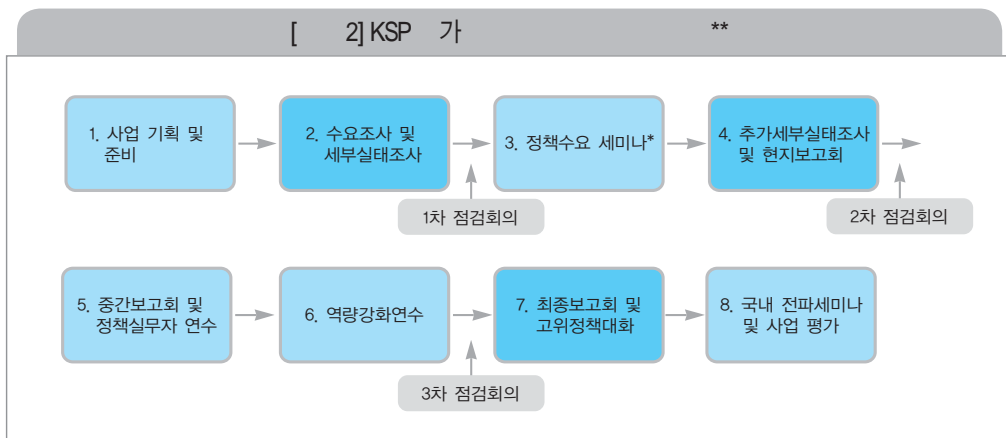
) 가
가

KSP [2]

8

[2] KSP 가

**



*

**

가

[3] KSP 가

KSP	<p>KSP - . , . 가</p> <p style="text-align: right;">喃</p>
<p>(2/4 KDI)</p>	<p>가 (KSP Index) 가 , 가 , KSP 가</p> <p>KSP - KSP : 1 (2)</p> <p style="text-align: right;">喃</p>
	<p>가 , . ,</p> <p>- 가 . 가 가 가 가 .</p> <p style="text-align: right;">喃</p>
	<p style="text-align: center;">KSP</p> <p style="text-align: right;">喃</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right;">喃</p>
	<p style="text-align: center;">喃</p> <p style="text-align: right;">喃</p>
	<p>() , ()</p> <p style="text-align: right;">喃</p>
	<p>(PM, , ,) / 가 , 가 ,</p> <p style="text-align: right;">喃</p>

		喃
		가
MOU		喃
TOR	가 TOR ¹⁾	MOU
1 (가 가)		喃
		喃
가	가 , 가	喃
		喃
2	2) (가 , 가	喃
		喃
2)		喃

		喃	
	()	3) . (
		3 .	
		2 , , 2 가	
		喃	
		(, .) ,	
		, , ,	
		喃	
가		3	
	, ,	. 가 , 가 () 가 , 가	
	()	PM 가, , , ,	
		가 ,	
	가		
	가	가 가 ,	

:1) 가 TOR 가 , 가 가 (2 () , 가
2) 가 ,) , 가

- 김민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 *경제발전연구*, 제11권 제1호, pp. 11-17, 한국경제연구원, 2011.
- Fiszbein, Ariel, Norbert Rüdiger Schady, and Francisco H. G. Ferreira, *Conditional Cash Transfers: Reducing Present and Future Poverty*, Washington, D.C.: World Bank, 2009.
- Kharas, Homi, “Bringing Development into the G20: Overarching Themes,” in Colin I. Bradford and Wonhyuk Lim (eds.), *Toward the Consolidation of the G20: Form Crisis Committee to Global Steering Committee*, Seoul: KDI and Brookings, 2010, pp.214~225. (http://cid.kdi.re.kr/cid_eng/public/report_view.jsp?pageNo=1&pub_no=11568)
- Lindauer, David L. and Lant Pritchett, “What’s the Big Idea? The Third Generation of Policies for Economic Growth,” *Economia*, Fall 2002, pp.1~28.
- Morris, Michael, Hans P. Binswanger-Mkhize, and Derek R. Byerlee, *Awakening Africa’s Sleeping Giant*, Washington, D.C.: World Bank, 2009.
- Ranis, Gustav, Frances Stewart, and Alejandro Ramirez, “Economic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Vol. 28, No. 2, 2000, pp.197~219.
- Rodrik, Dani, “Goodbye Washington Consensus, Hello Washington Confusion? A Review of the World Bank’s Economic Growth in the 1990s: Learning from a Decade of Refor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4(4), 2006, pp.973~987.
- Sakong I. and Y. Koh (eds), *The Korean Economy : Six Decades of Growth and Developmen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0.
- Sumner, Andy, “Global Poverty and the New Bottom Billion: What if Three-Quarters of the World’s Poor Live in Middle-Income Countries?” Brighton, UK: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2010.
- Winters, L. Alan, Wonhyuk Lim, Lucia Hanmer, and Sidney Augustin, “Economic Growth in Low Income Countries: How the G20 Can Help to Raise and Sustain It,” Seoul: KDI, 2010. (http://cid.kdi.re.kr/cid_eng/public/report_view.jsp?pageNo=1&pub_no=11569)
-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Yunus, Muhammad, *Banker to the Poor: Micro-Lending and the Battle Against World Poverty*, New York: Public Affairs, 2003.

2013	()			(PM. 前 , KAIST)
		가 :		()
		(Treasury Dealing Room)		()
		PPP 가 (MP3EI)		() ()
		(ALM)		()
		SPAN		()
				()
		(UHC)		()
		[] ()	KPMG&	
		[] :		
[] PCR(Public Registry Data) (CB CB)				
(,)			- 2030	
			(PM,)	
	5 (2015~2019)		()	
	5 ADI		()	
	5 :		(가)	
	5 :		()	
PPP	(PPP)		() , ()	

2013	(,)	가	
		(PM,)	
		가 : (start-up)	()
		가	(IT)
		.	(.)
	(;)	가	
		(PM,)	
			()
			()
		-	()
	(;)		
		(PM, IT)	
			()
		:	()
			(IT)
GIDC		(IT)	
(;)			
	(PM,)		
	2 (SDRC)	()	
	(PPP)	()	
		() ()	
	(AMOS)	()	
	:	()	
가 DB			

			(PM,)	
	가		()	
			()	
			()	
			()	
2013		2011 ~ 20	(PM, KDI)	
	가 :		()	
	가		(KDI)	
			(KDI (LH))	
			()	
		DATC		(PM,)
				(,)
	DATC		()	
	DATC		(,)	
	DATC		(,)	
			(PM,)	
	가:		()	
			(KDI)	
			()	
			()	

가 ()	가	
	(PM,)	
	가	가 ()
	가	()
	가 ICT Park , e-business	()
	가	()
	Think Tank	()
	가	(() C&T)
2013 (,)	가	
	(PM,)	
	가 :	()
		()
		()
(,)	가	
	(PM,)	
		() ()
		, ()
		() ()
		() ()

2013	(,)		(PM, KDI)
			(KDI)
			(KDI)
		FDI	(KDI)
			()
			()
			(前)
			(,)
2013	(,)		(PM,)
			, ()
		(ERD)	() ()
2013	(,)		(PM,)
		IT	()
			(가)
			()
2013	DR (,)		(PM,)
			()
		DR	()
			(())
		DR	(SK C&C)
2013	가 (,)		(PM,)
		(PPP) 가	() (KPMG)
			, ()
			() (KPMG)
			() (KPMG)

2013	(,)	ICT	
			(PM,)
		[]	&
		[] ICT 가	
		[] ICT	
		[] ICT	
		[]	
		[] ICT	
		[] IT	
		[] IT	
[]			
(,)	4 (州)		
		(PM,)	
	CETAI	()	
		()	
	TESCo	()	
(,)	가		
		(PM,)	
	가	()	
		()	
		()	
	가 가	() ()	
(,)	(PM,)		
	(IDH)	() ()	
		, () ()	
		, () ()	
		()	
(,)	(PM,)		
	가	()	
		()	
		()	
		()	

			(PM,)
			()
	(,)	對韓	()
		Bancoldex	()
			(PM,)
			(' ')
	(,)	R&D	()
			, ()
		:	()
2013			, 가 /
			(PM,)
	(,)		, ()
			() ()
		2013~17	() ()
			(PM,)
	(,)	R&D	(')
			, ()
			() ()
			(PM,), Salamat Onalbekov()
		OECD	()
	(,)	(PPP)	, () Kairat Seitov()
			() Ardak Dossanov()

2013	(가,)	가	
		(PM, KDI)	
			(KDI)
		(FDI)	()
			Sherzod Shadikhodjaev (KDI)
		: R&D	(KDI)
	(,)	가 - FTA	
		(PM,)	
		- (FTA)	() ()
			() ()
	(,)		
		(PM,)	
			()
			()
	(,)		
		(PM,)	
		[]	KDI ,
		[] : KDI	
		[]	
		[]	
[]			
[]			
[]			
(,)			
	(PM,)		
	[] ,		
	[]		
	[] IT		
	[]		
	[]		
[]			

〈부표 1〉의 계속

		가 R&D	
		(PM, 前, KDI)	
			(KDI)
			(KDI)
		가	(KDI)
		/	(KDI)
			()
		가	()
		[]	
		[]	
2012	* (,)	(PM, 前, KAIST)	
		:	()
		가	()
		(SPAN)	, Gregory Pokorny ()
		(PPP)	, ()
			(())
		가	(,)
			(()) ()
		HRD :	() ()
			* (,)
	(,)		
	(,)		
,	(,)		
	()		
가	()		
가	()		

〈부표 1〉의 계속

2012	** (,)	()	
		(PM,)	
			()
			()
			(AI Yamamah University)
		KEM	()
	(,)	가 : ,	
		(PM,)	
			()
			()
			()
			()
			()
	(,)	가 2030	
		(PM,)	
		가 2030	, ()
		:	()
		:	(가)
		2030	()
		:	(KDI)
		, () ()	
(가 ,)	가		
	(PM,)		
	가	, ()	
	가 (PPP) 가	() (KPMG)	
		(')	
		()	

〈부표 1〉의 계속

2012	* ()		(PM, ,)
		:	()
		가	()
			(,)
			()
			(,), (,)
	(*) (,)		(PM,)
			() ()
			() ()
		:	() ()
			() Fausto Perez(MCCTH)
			() ()
	(,)	R&BD	
			(PM,)
			()
		R&BD	()
			()
			(())
		() ()	
	()		(PM,)
		()	
		()	
		()	
가		()	
		() ()	

〈부표 1〉의 계속

2012	** (,)	ICT	
		(PM,)	
			()
			(,)
		ICT	()
	가 (,)	가	
		(PM,)	
		가	()
		가	()
		가 IT Park	(()) ()
	(,)	가	
		(PM,)	
			()
			(KAIST)
			()
	(,)	가	
		(PM,)	
			()
			()
		가	() ()
		() ()	
		()	
		Shinji Takagi(日)	
**/(*) (,)	가		
	(PM,)		
	Hidalgo	() (KR)	
	Hidalgo	() ()	

〈부표 1〉의 계속

2012	(,)			(PM, 前)
				() () ()
				('가 ')
	((*) ,)			(PM,)
		HSIA	BSMIA	() ()
				(/) ()
	(,)			(PM, KDI)
				()
		KIST		()
		(2012~2020)		(KDI)
				()
	(,)	가 (EPZ) :		(PM,)
가 EPZ		()		
		()		
EPZ		()		
가		()		
(,)			(PM, () IT)	
	IT		(() IT)	
	/ R&D		()	

〈부표 1〉의 계속

2012	(,) **		
		(PM,)	
			() ()
			() ()
	(,)	ICT : /	
		(PM, IT)	
			(PM, IT)
			(SDS)
	(,)	: , , ,	
		(PM,)	
			()
			()
	(,)		
		(PM,)	
		()	, ()
			()
	(,)		
		(PM,)	
			(前)
			()
		()	
		() (), ()	

〈부표 1〉의 계속

2012	(,)		
		(PM,)	
			()
			()
		DIB	, ()
		IT	
	(,)		
		(PM,)	
			() ()
		:	, ()
	(,)		
		(PM,)	
가		()	
		()	
가		()	
		()	
		()	
		()	
(,)			
	(PM,)		
	가	()	
	가	()	
	() ()		

〈부표 1〉의 계속

2012	(,)		
		(PM,)	
			()
			()
	(, (*))	4	
		(PM,)	
			() ()
		가	()
			(())
			()
	(,)		
		(PM,)	
가 :		, () ()	
		(,)	
2011	2011~20		
	(PM, KDI)		
		(KDI) Pham Van Ha (가)	
	가 :	() Ngyuen Thai Lan Huong, To Hai Long, Ngyuen Phuong Lan (DS)	
		()	
	:	()	
:	, ()		

〈부표 1〉의 계속

2011			
		(PM, 前, KDI)	
		(IBK)	
		(())	
		()	
	가	()	
	:	()	
		(PM, 前, KAIST)	
	-	()	
	KSP	()	
		()	
	PCR 가	, ()	
		(()) ()	
		가	
		(PM,)	
		()	
		()	
		()	
		(CEWIT KOREA)	
	()		
	(PM, KDI)		
	(KDI)		
	()		
	()		
	()		
(BTO)	, ()		

〈부표 1〉의 계속

2011		가 :	
		(PM,)	
			()
			()
		EPZ	, ()
		가	()
	가	가 :	
		(PM,)	
		가	()
		가	()
		가	()
		가 ICT	()
		(PM,)	
			()
		()	
	(/)	(가)	
	(ICT)	()	
	()	()	
	(PM,)		
		()	
		()	
		()	
	(PM,)		
		()	
		()	
		()	

〈부표 1〉의 계속

2011		
	(PM,)	
		() ()
		()
		(,)
		(,) (,)
	(PM,)	
		() ()
	가	(;) (;)
		(;) (;)
	(PM,)	
		()
		()
ICT		
(PM,)		
ICT	()	
ICT	()	
	(KDN)	
Horizon 2020 가		
(PM,)		
	()	
	()	
	()	
	()	

〈부표 1〉의 계속

2011			(PM,)
			()
			()
			, ()
			, ()
		가	(PM,)
			()
			()
		가	() ,)
			(PM,)
			()
			, ()
			()
			()
		ICT	(PM,)
		e - Literacy	(,)
		가 GIS	()
		ICT	()
			()
			()
		(PM,)	
		()	
	가 :	()	
	-	()	
	EBS :	()	

〈부표 1〉의 계속

2011			(PM,)	
			()	
			()	
			()	
			()	
			()	
2010			(PM,)	
		가	(PM,)	
		:	()	
			()	
		:	(PM,) ()	
			()	
	가	Program :	Pilot	(가)
		:		(PM, KDI)
				()
				()
			(PM, 前 ,)	
	가			()
			(KPMG)	
		가	()	
			(())	
			(PM,)	
가			()	
			()	
			() (K-water)	
		FDI	()	
가			(가)	
		SME	()	

〈부표 1〉의 계속

2010	: ,		(PM, 前 ,)
	가		()
	:		()
			(KDI)
			, ()
			(/)
	가		()
		가	()
			(PM,)
			()
	: 2011~20		(PM, KDI)
	가		()
			()
			(PM, KDI)
			()
			()
			()
			(KDI)
			(PM,)
		HRD	()
	가	()	
8 ICT 3 ICT		(PM,)	
		()	
	가	()	
		()	
		, ()	
		()	
		()	
		()	
		()	
		()	
		()	
	R&D	()	

〈부표 1〉의 계속

2010	()		
		(PM, 前)	
			(前) ()
			() ()
			()
	()		
		(PM,)	
			()
			, ()
	()	5	
		(PM,)	
		5	SCPD ()
			()
		가	(KDI)
	가 ()	가 가 - 가	
		()	
		.	()
		.	() (C&S)
		가 .	() () (C&S)
		.	()
()	가		
	(PM, 가)		
	가 e-	(가) ()	

〈부표 1〉의 계속

2010	()		
		(PM,)	
			()
			()
	()		
		(PM,)	
		:	()
			()
			(,) ()
		가	()
		가	()
	DR ()	가	
		(PM, S&R)	
		DR 가	(S&R)
		가 .	()
	()	CEPLAN	
		(PM,)	
		CEPLAN, 가 (IIS) (SINAPLAN)	() ()
		IIS	() ()
	()	[]	, ()

〈부표 1〉의 계속

2011~20		
		(PM, KDI)
		()
		(), ()
		()
	:	(KDI)
		()
		()
		()
	가 :	()
	R&D	()
		()
2009		(KDI)
		(KDI)
		()
		()
	(FIEZ)	
		(PM,)
()	FIEZ	()
		()
	(FIEZ)	()
	FIEZ	Sherzod Shadikhodjaev ()
()	(PM,)	
	:	()
		()
		()
		()

〈부표 1〉의 계속

2009	()		(PM,)
			()
			()
		PPP	()
			()
	()		(PM,)
			()
			()
			()
			() (前)
			()
		III:	()
	()		(PM,)
		EDCF 가	()
			() () ()
			()
		EDCF	()
			()
	()		()
			()
		()	
RD&D		()	
		()	

〈부표 1〉의 계속

		가 -	가 가
	가 ()	가	()
		가	()
			()
		가	()
		가	()
2009	()	가	
		FNI - BAD	()
			()
		FNI - BAD	()
			()
	()		
			()
			()
			()
2008	()		
			(PM,)
			()
			()
			()
			()
			()

〈부표 1〉의 계속

2008	()		(PM,)
			() ()
		, , 가	() ()
			() ()
			()
	()		(PM,)
			()
		- -	()
			()
		WTO 가 가	()
	()	WTO	(PM,)
			()
		WTO	()
		WTO 가	()
			()
	()	가	(PM,)
			()
			()
		, 가 ,	()
			()
()		()	
		()	
		()	
		()	
		()	

〈부표 1〉의 계속

2008	()	:	
			()
			()
			(BC) () ()
()			
	/	()	
		()	
()	가		
		(PM,)	
	SWOT	()	
		()	
		(KDI)	
		()	
	5 가	()	
2007	가 ()		
			(PM,)
			()
		가 .	()
			() ()
가	()		
()	WTO 가		
		(PM,)	
	WTO 가	()	
	WTO	()	
	WTO 가	()	
		()	

〈부표 1〉의 계속

2007	()		()
		가	() ()
			()
			Sherzod Shadikhodjaev ()
			Akhmedov, Sadikov, Said Akhmedov, Talipova (CSER)
			Akhmedov, Sadikov, Said Akhmedov, Talipova (CSER)
()			()
			()
2006	()		(PM, KDI)
		2007~2011	(KDI)
			(()) (())
			()
			:
()			(PM,)
		박창균(중앙대) 나준모(BC카드)	
		(BC)	
		()	
		()	
		()) ())	
()	[]	()	
()	[]	, KDI ,	

〈부표 1〉의 계속

2005	()	(PM,)
		() (Chulalongkorn University)
		()
		:
		(KDI)
		()
2005	()	(PM, 가)
		()
		(())
		(KDI)
		()
		()
2004	()	(PM,)
		()
		: WTO 가
		()
		()
		- FDI
2004	()	(PM, KDI)
		()
		()
		:
		(KDI)
		()

: 1) *
2)

()

, **

가, (*)

가

도미니카공화국 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 도미니카공화국 KSP 사업의 진행과정
- 도미니카공화국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 총론

제1장 수출금융기구 설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제2장 무역센터의 개발 및 출범

도미니카공화국 KSP 사업의 진행과정

김 연 주 (미래와세계)

제1절 추진 배경

도미니카공화국 경제발전경험공유(KSP) 사업은 2006년 6월 도미니카공화국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당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한국의 발전 경험 전수를 요청하였고, 기획재정부가 도미니카공화국을 중남미 제1호 KSP 대상국으로 선정함에 따라 도미니카공화국 KSP 사업이 시작되었다.

도미니카공화국 KSP 사업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6차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2008년 제1차 KSP 사업의 주제는 ‘수출진흥 및 수출 역량강화’로 결정되었으며,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 진흥정책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정책자문을 실시하였다.

2009년 제2차 KSP 사업은 ‘수출기반시설과 전략체계 개선’을 주제로, 도미니카공화국 전력난 해결을 위한 전력시스템 개선방안과 수출산업 발전을 위한 수출 인프라 개발사업 발굴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활용한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실시하였다.

2010년 제3차 KSP 사업의 주제는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구 설립지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입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자문과 현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출신용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현재 수출입은행법 제정 등의 내부 절차를 진행하는 등 도미니카 수출입은행 설립을 추진 중이다.

〈표 1〉 각 연도별 도미니카공화국 KSP 주제

년도	주제
2008년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 진흥 및 수출역량 배양 - 도미니카공화국의 전략적 입지 재설정 -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성장 패턴 - 교육 및 직업훈련 - 산업·무역구조 분석 -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금융현황 및 중장기 활성화 대책: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펀드 조성 및 수출입은행 설립제언
2009년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기반시설과 전력체계 개선 - 전력체계 개관과 현안과제 - 발전부문의 문제점과 해법 - 배전부문의 문제점과 해법 -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인프라 개발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국가지원 전략
2010년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진흥을 위한 수출신용기구 설립 지원
2011년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 역량강화와 수출산업 육성정책 경험전수
2012년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산업육성지원 - 수출신용 시스템구축 - 농식품혁신기술센터 설립 지원 - 국립혁신과학기술대학 설립 지원 - 3D애니메이션과 콘텐츠 개발

2011년 제4차 KSP 사업은 설립 추진 중인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입은행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3차 KSP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 역량강화와 수출산업 육성정책 경험전수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2년 제5차 사업도 “수출진흥”에 특화된 KSP 1차~4차 사업의 지원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사업 제안 주제를 중심으로 정책우선 순위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 주택생산축진은행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① 수출신용 역량 강화 ② 농식품혁신기술센터 설립 지원 ③ 국립혁신과학기술대학 설립 지원 ④ 콘텐츠 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 4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3년 제6차 KSP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투자청(Export and Investment Center of the Dominican Republic, CEI-RD)의 요청에 따라 “도미니카공화국 산업의 수출역량 강화”라는 대주제 하에서, ① 수출금융기구 설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② 씨바오(CIBAO)무역센터의 개발 및 출범이라는 2개의 소주제(Sub-title)를 확정, 시행하였으며 주요 진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절 경과

1. 수요조사서 접수 및 연구과제 선정

2013년 도미니카공화국 KSP 시행을 위하여 도미니카 정부의 담당부서인 수출투자청(CEI-RD)으로부터 주 도미니카 대사관을 경유하여 수요조사서를 접수하고, 수요조사 시 의견 조율,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아래<표 2>와 같이 연구주제를 선정하였다.

즉 제1소주제의 경우는 특별한 변동 없이 당초 협의된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제2주제의 경우 당초 “씨바오(CIBAO) 무역센터의 개발 및 출범”이었으나 도미니카 수출투자청(CEI-RD)측이 반드시 도미니카공화국 씨바오 지역에 무역센터를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제2주제를 “무역센터의 개발 및 출범”으로 변경하였다.

〈표 2〉 도미니카공화국 KSP 연구주제

대주제	도미니카공화국 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소주제	수출금융기구 설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Follow-Up Support in Launching of DEXIM for Export Credit Capacity Building of the Dominican Republic)
	무역센터의 개발 및 출범 (Establishment of the Trade Center in the Dominican Republic)

2. 연구진의 구성

연구주제가 확정됨에 따라 미래와세계는 <표 3>과 같이 정책자문팀을 구성 하였다.

〈표 3〉 주제별 연구진

구 분	성명	소속 및 유관경력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PM)	이선인	미래와세계 부이사장
수출금융기구 설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
무역센터의 개발 및 출범	이흥식	고려대학교 교수

3. 고위인사 수요조사 및 세부 실태조사 실시

2013년 도미니카공화국 KSP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미니카측 고위인사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관련기관 방문을 통하여 현황파악 및 관련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고위인사 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를 2013년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동 대표단에는 이선인 프로젝트 매니저(PM)를 비롯하여 한재준 교수, 이홍식 교수 등 정책자문팀 전원이 참가하였다.

정책자문팀은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CEI-RD)을 방문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CEI-RD) 청장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주제별 담당 연구진이 연구에 대한 방향을 파워포인트로 설명하고,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CEI-RD) 청장 및 고위급 직원들의 수요 및 의견을 수렴하였다.

무역센터 설립 예정지인 산티아고를 방문하여 무역센터 설립예정지로서의 지역여건을 조사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축진은행(Banco Nacional de la Vivienda y la Produccion, BNVP) 본사를 방문하여 은행장을 비롯한 간부진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고 도미니카수출입은행 설립(전환)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수출금융기구 설립을 위한 세부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CEI-RD) 부청장 및 구스타보 디아즈(Mr. Gustavo Diaz)와 별도 회합을 통하여 무역센터에 대한 정책수요 및 세부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4. 현지전문가 선정 및 계약체결

도미니카측의 현지전문가를 선정함에 있어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 (CEI-RD)의 고위 책임자급을 선정토록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CEI-RD) 측에 요청하였던바, 고위 책임자 3명을 추천받고, 현지에서 각 주제별 연구진이 직접 인터뷰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표 4>와 같이 현지컨설턴트를 선정하였다. 상기 컨설턴트들은 현지에서 TOR(Terms of Reference, TOR)을 서명하였으며, 연구진의 현지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자료수집 지원,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4> 현지컨설턴트 명단

구분	성명	소속
수출금융기구 설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마르셀 실베스트레 (Maricell Silverstre)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
무역센터의 개발 및 출범	구스타보 디에즈 (Gustavo Diaz)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
무역센터의 개발 및 출범	이홍식	고려대학교 교수

5.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과의 협의를 거친 MOU 문안을 “고위인사 수요조사 및 세부 실태조사”를 위한 정책자문팀의 출발 전에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CEI-RD) 측에 이메일로 사전 송부하여 협의하였던바, 방문기관 및 일정에 관한 문안을 일부 수정하고 문안에 대해 합의하였다. 동 문안을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고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CEI-RD)과의 서명 절차에 착수하였던바,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CEI-RD) 청장이 직접 서명하였다.

6.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2013년 8월 10일~8월 16일 시행한 고위인사 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연구한 중간 결과를 도미니카공화국의 정책책임자(수출투자청장) 및 정책실무자들에게 설명하여 중간결과에 대한 도미니카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도미니카공화국 대표단에게 연구주제와 관련된 한국기관들을 방문케 하여 정책자문의 효과를 높이고자 2014년 2월 16일~2월 21일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를 실시하였다.

금번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를 위하여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장 알렌로드리게즈(Jean Alain Rodriguez) 수출투자청 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상업투자정책과(Commerce and Investment Policies Departament)의 매니저(Manager)인 마르셀 실베스트르 로드리게즈(Maricell Silvestre Rodriguez), 투자과(Investment Department)의 부매니저(Deputy Manager)인 카르멘 멘데즈(Carmen Mendez), 마케팅부(Marketing Department)의 부매니저(Deputy Manager)인 로라 씨드(Laura Cid) 등 4명의 대표단이 방한하였다.

2014년 2월 17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는 도미니카 대표단 4명 외에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그리스아 피오르달리시아 피차르도 대사 및 공사, 오영교 수석고문(미래와세계 이사장), 이선인 프로젝트 매니저(PM)(미래와세계 부이사장), 최은지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 인하대학교 한재준 교수, 고려대학교 이홍식 교수, 김연주 미래와세계 연구원 등 총 13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제별로 한국의 연구진이 20분간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도미니카측 컨설턴트가 10분간 현황보고 및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금번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도미니카측은 “씨바오(CIBAO) 무역센터의 개발 및 출범”의 주제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여 주제를 “무역센터의 개발 및 출범”으로 하기로 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 대표단은 오영교 수석고문으로부터 수출증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하여 정책 기획 및 집행자로서의 경험을 전수 받는 한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 기술 센터 방문 및 MOU 체결, 롯데 중앙연구원 방문, 한국종합전시장(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COEX) 방문, 한국수출입은행 방문 등 정책실무자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산업통상부차관 면담을 통하여 한·도미니카 양국간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고, 금번 KSP와는 별도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에서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7.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 개최

중간보고회시 제시된 도미니카측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한 연구의 최종 결과 및 정책권고안을 도미니카측 정책당국에 설명하는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인사 면담을 통하여 정책반영가능성을 제고하고 한·도미니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4년 4월 20일~4월 26일 산토도밍고를 방문,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동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를 위하여 오영교 수석고문, 이태희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자문실장, 이선인 연구 프로젝트 매니저(PM) 및 한재준 교수, 이흥식 교수 등 연구진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하였으며,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 청장의 환영사, 박동실 주 도미니카공화국 한국대사의 환영사, 오영교 수석고문의 개회사 및 이태희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자문실장의 축사에 이어 주제별로 연구진의 연구결과 내용 발표(주제별 20분) 및 도미니카측 로컬 컨설턴트의 현황발표 및 토론(주제별 10분)이 있었으며, 이선인 프로젝트 매니저(PM)의 폐막인사로 최종보고회가 마무리되었다.

대표단은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촉진은행 방문 등 현장 방문 외에 고위정책대화의 일환으로 농림부 장관 및 상공부 장관을 방문하여 KSP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권고안을 설명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증대방안을 협의하였다.

8. 최종보고서 작성

고위정책대화 및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수렴된 도미니카 측의 의견 및 현황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도미니카공화국 KSP 사업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이 선 인 (미래와세계)

1. 수출금융기구 설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을 중심으로 2013년 9월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축진은행(BNVP)을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입은행(The Dominican Export-Import Bank, DEXIM 혹은 BANDEX)으로 전환코자 관련 법안의 초안을 완성하고, 2014년 2월에는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이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입은행(BANDEX 혹은 DEXIM)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입은행(BANDEX 혹은 DEXIM) 출범을 공식화하였다. 2014년 3월말 현재 상기 법안은 도미니카공화국의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되어 있으며 국회 농업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도미니카 의회가 관련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2014년 내에 수출입은행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축진은행(BNVP)의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입은행(BANDEX 혹은 DEXIM)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수출계약을 근거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영업체계를 전환하는 측면에서 수출금융체계를 갖춘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출관행을 살펴볼 때 대출건당 그 한도가 크지 않았고, 담보부 대출형태이었으며,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축진은행(BNVP)의 점포부족으로 직접 대출이 어려워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여하는 간접지원(온렌딩) 방식이라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출범할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금융과 관련한 여신심사, 리스크관리 등의 내실화가 주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또한 본 보고서의 후반부에서는 이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의 성공적인 출범에 중요한 자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2012년 현재 도미니카의 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 비중이 낮고, 수출주력상품도 노동집약적인 농산물 비중이 높아 GDP(Gross Domestic Product, GDP)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 이로 인해 향후 출범할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이 담당할 수출금융업무가 단순한 무역신용제공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에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이 출범하고, 공적 수출신용기관(ECA) 업무 기반이 구축되었는데도 이러한 연유로 인해 도미니카의 경제성장이 더디어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이 현재의 계획과 달리 수출입지원기관으로 역할이 소규모에 그치고 말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한국의 한국산업은행을 벤치마킹하여 도미니카공화국 기간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설비투자금융기관의 역할을 병행시키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미에 제시하였다.

2. 무역센터의 개발 및 출범

무역센터 건립의 당위성과 그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도미니카공화국 의회와 고위공무원들에게 도미니카공화국 내에 무역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논리적 타당성을 제공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무역센터 건립의 당위성과 역할 외에도 본 연구는 한국이 제공하기로 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이외에 무역센터 건립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무역센터의 가장 효율적인 운영과 설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건들과 이를 충족하는 최적 입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무역센터 건립에 대한 노하우를 도미니카공화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도미니카공화국의 무역센터 건립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함께 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무역센터의 건립은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역센터의 건립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취약한 무역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배양하며, 동시에 무역 운영시스템 구축 등을 달성함으로써 무역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는 결국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주력산업이었던 의류 산업의 쇠퇴와 페로니켈의 수출 정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무역센터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이 상대적 우위를 지니는 식료품 산업과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무역센터는 무역 아카데미를 통한 무역 인력 양성, 전자무역통합시스템을 통한 무역 절차의 개선 등의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무역 아카데미는 무역업 종사자들에게 폭넓은 교육과정과 무역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수출기업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 또한 전자무역통합시스템은 무역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제반 비용을 절감하게 함으로써 국제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무역센터의 건립은 궁극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 증대와 관광산업의 육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센터의 건립으로 인해 해외 바이어가 한 곳에서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용의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 이는 결국 도미니카공화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무역센터의 전시 확충에 따른

해외 바이어의 방문 증가는 결국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에 사업 목적의 관광을 확대시키고 해당 지역의 숙박시설과 기반시설의 연계적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론

이 선 인 (미래와세계)

1. 수출금융기구 설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2008년 이후 지속된 KSP의 수출신용역량 강화노력과 도미니카 정부의 노력의 결과로 수출지원금융기관인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BANDEX 혹은 DEXIM)의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CEI-RD)은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 추진의 마지막 관문인 현지 의회 설득을 위해 한국의 개발경험 사례, 개발시대에 정부의 역할, 수출입은행의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늘날의 한국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한 박정희 정부는 1960년 집권초기부터 5년 주기의 경제개발계획을 총 4차례에 걸쳐 추진하면서 오늘날의 반도체, 중공업, 선박, 자동차, 가전 분야의 수출기업을 보유한 삼성, 현대, LG 등을 탄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60년~1980년 기간 중 한국정부는 경제개발과 수출증가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과 자금을 이들 산업에 집중시켰다. 특히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개발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은 주요전략시책에 대한 자금공급과 중화학공업 육성에 필요한 장기설비금융을 주로 담당하였고, 수출입은행은 한국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불수출금융을 담당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한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20세기 후반에 경제발전을 이룬 개발도상국들은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정책 수단으로 정부의 조세와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출산업육성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려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있어서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은 반드시 필요한 기구이다.

한편, 이제 공적수출신용기관(ECA)으로 전환하여 출범하려는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촉

진은행(BNVP)이 2014년 중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단기과제는 아래의 세 가지이다. 첫째는 담보부대출보다는 신용장 내지 과거 수출실적에 근거한 실질적인 수출금융지원으로의 전환이다. 둘째는 수출금융의 건당 대출규모 확대 내지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이다. 셋째는 시중 은행에 자금을 공여하는 간접지원방식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이 직접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그리고 향후 2~3년간 수출금융의 수요 증가추세를 살피면서 중장기 과제로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하는 수출입 금융상품 도입, 신용평가기법 및 리스크관리 기법의 개선, 그리고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제도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2. 무역센터의 개발 및 출범

본 연구의 목적은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현황에 근거하여 무역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도미니카공화국 내 무역센터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함에 있다. '2010~2030 도미니카공화국 국가발전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도미니카공화국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수출의 증대를 통한 경제발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의 노하우를 도미니카공화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도미니카공화국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무역의 증대를 달성하기 위한 무역센터의 건립과 무역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무역센터는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무역아카데미 개설, 그리고 전자무역통합시스템 등을 통하여 무역의 증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무역의 증대는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상설 전시장의 부재, 전시시설의 협소, 그리고 비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보이고 있기에 전시장소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무역센터의 건립이 요구된다.

실제로 한국은 한국종합전시장(COEX)을 통해 정부주도형 대기업 수출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육성을 통한 수출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종합전시장(COEX)은 국제박람회 개최 등과 같은 전시산업을 통해 한국과 한국 상품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였으며,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도미니카공화국에서도 한국의 무역센터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무역센터가 도미니카공화국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무역아카데미 개설, 그리고 전자무역통합시스템 구축으로 구분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무역센터의 건립과 관련하여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센터가 들어설 장소와 관련하여 이 무역센터의 단기적 성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잠재적 해외구매자들의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이 가장 높은 지역에 무역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

이는 무역센터 건립의 자기금융(Self-finance)전략의 실효성과도 관련된 사안인 만큼, 현재의 교통 제반시설, 주변의 휴양시설, 산업기지 등의 접근성을 고려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수도인 산토도밍고(Santo Domingo)가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

시킴으로써 무역센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입지로 고려된다.

둘째, 이와 같이 무역센터에 대한 잠재적 해외구매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은 반드시 도미니카공화국의 산업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즉, 도미니카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식품산업, 관광산업과 연계한 무역센터 개발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무역센터관리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무역센터 관리주체를 도미니카 정부가 아니라 민간 무역진흥기구를 통하여 추진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무역센터의 포괄적 기능, 즉 무역교육기관(Trade Academy) 역할, 인터넷 무역(E-Trade) 보급, 무역정보센터(Trade Information Center) 등의 기능은 체계적인 무역진흥기관(Trade Promotion Agency)을 통하여 달성 가능한 과제들인 것으로 생각된다. 무역진흥기관(Trade Promotion Agency)에 의한 운영은 향후 무역센터 건립 및 관리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 및 불투명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1장 수출금융기구 설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한 재 준 (인하대학교)

< 요약 >

2008년 이후 지속된 KSP의 수출신용역량 강화 작업과 도미니카 정부의 노력으로 수출 지원금융기관인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입은행(BANDEX 혹은 DEXIM))의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거 한국의 경험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촉진이 필요하고 이를 담당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1960~80년대 한국의 개발경험 사례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수출 진흥 및 산업고도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발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한국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집권초기에 금융억압과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진흥하는 방향의 경제개발 계획정책을 택하였다. 구체적으로 1960년대에는 금융기관의 소유권과 인사권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특수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신설하여, 수출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임 기간 중 실시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년~1971년)에서부터 박정희 정부는 철강공업, 기계공업, 석유화학공업 등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기로 결정하고 이들 산업의 수출증가를 위하여 세계 혜택 등 각종 지원과 자금을 제공하였다. 이것이 오늘날의 반도체, 중공업, 선박, 자동차, 가전분야의 수출기업을 보유한 삼성, 현대, LG 등을 탄생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1960년~1980년 중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에는 개발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주로 활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은 주요전략시책에 대한 자금공급과 중화학공업 육성에 필요한 장기설비금융을 주로 담당하였고, 수출입은행은 한국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불수출금융을 담당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20세기 후반에 경제발전을 이룬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수출 확대를 위해 조세혜택과,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을 실시해왔다. 그리고 특히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은 각국의 공적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ECA)이 담당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출산업육성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려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있어서 도미니카공화국 수출금융기구는 반드시 필요한 기구이다.

관련하여, 이제 공적 수출신용기관(ECA)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축진은행(BNVP)이 수출금융기구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2014년 중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아래의 세 가지이다.

첫째는 담보부대출보다는 신용장 내지 과거 수출실적에 근거한 실질적인 수출금융지원으로의 전환이다.

둘째는 수출금융의 건당 대출규모 확대 내지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이다.

셋째는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여하는 간접지원방식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이 직접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그리고 향후 2~3년간 수출금융의 수요증가 추세를 살피면서 중장기과제로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입 금융상품 도입, 신용평가기법 및 리스크관리 기법의 개선, 그리고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제도 도입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1절 서론

1. 과거 진행경과

도미니카공화국 KSP 사업은 2006년 6월 한국을 방문한 도미니카공화국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개발경험 전수를 요청하였고, 기획재정부가 도미니카공화국을 중남미 제1호 KSP 대상국으로 선정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특히 수출신용 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입은행 설립 관련 사업은 2008~2012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어왔다.

제1차 KSP 사업은 2008년 ‘수출 진흥 역량강화’란 주제로,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 진흥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자문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2009년 제2차 KSP 사업에서는 ‘수출 진흥을 위한 사회간접자원 개발’이란 주제로, 도미니카공화국 전력난 해결을 위한 전력시스템 개선방안과 수출산업 발전을 위한 수출 인프라 개발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지원에 대한 정책자문이 이루어졌다. 2010년 제3차 KSP 사업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구 설립’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입은행(BANDEX 혹은 DEXIM)을 설립하기 위한 자문과 현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신용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후 2011년 제4차와 2012년 제5차 KSP 사업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신용 역량강화’와 ‘한국의 수출산업 육성 경험전수’

가 연속해서 수행되었다.

2. 금번(6차)사업 진행과정 요약

2012년까지 5차에 걸친 KSP사업 진행에도 불과하고 도미니카의 수출입은행인행 설립절차가 예상과 달리 금융당국(통화위원회) 및 의회와의 의견 마찰로 지연되자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수출투자청, CEI-RD)는 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수출입은행(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공을 한국측에 요청함에 따라 6차 수출입은행관련 KSP사업이 재개되었다. 따라서 금번 6차 연구는 금융당국(통화위원회) 등에 제출한 수출입은행 개편안 정당화를 지지하기 위한 논거로서 수출입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그런데 2013년 8월 1차 현지 방문결과 도미니카 통화위원회에서 수출입은행 개편법안 타결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고, 도미니카공화국수출투자청(CEI-RD)은 금융당국인 금융통화위원회 설득을 위한 자문보다는 도미니카 산업 및 수출촉진정책을 위한 한국의 개발경험 사례와 수출입은행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

과거 한국의 경험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촉진이 필요하고 이를 담당할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지 논거로는 1960~1980년의 한국의 경제 발전경험, 그리고 동 기간 중 개발은행으로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을 조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4년 2월 중간보고회를 위한 도미니카공화국 대표단의 방한시점에 다닐로 메니나 현 대통령이 도미니카 수출은행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의회에 대해 관련법안의 처리를 촉구함에 따라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BANDEX 혹은 DEXIM)은 2014년 중에는 정식으로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도미니카 정부차원에서 수출금융지원을 위한 제반 환경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반면에 문제점은 앞으로 수출금융지원을 직접 담당해나갈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촉진은행(BNVP, 향후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입은행(BANDEX 혹은 DEXIM)으로 개명 예정)의 영업능력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촉진은행(BNVP)은 물론 다른 도미니카의 금융기관들의 대출행태가 아직까지 담보부대출 위주인 데다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미약한 실정이다. 실제 수출입은행으로의 개편을 추진 중인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촉진은행(BNVP)도 대부분의 대출이 담보부이고, 한국식의 신용장이나 과거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금융지원금액 비중은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현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촉진은행(BNVP)이 전환될 수출입은행으로서의 영업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차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관련하여 보고서 후반부에서 도미니카 수출은행의 모태가 될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촉진은행(BNVP)의 현황에 비추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제시한다. 이 내용은 2014년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최종보고회에

1) 이와는 별도로 중앙은행의 통화위원회가 금번 도미니카 수출입은행 설립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금융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1차 현지 방문 시 중앙은행법의 개정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1962년 한은법 개정을 통하여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에 물가 안정 이외에도 경제발전의 건인을 삼입한 바 있다.

서 제안된 것들이다.

이하에서는 1960년대~1970년대 한국의 개발경험 사례에 비추어 수출과 경제성장의 관계, 중화학공업육성이라는 산업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 그리고 정부의 수출 진흥 및 산업고도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을 순서대로 조명한다. 그리고 도미니카 수출입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으로 공적 수출신용기관(ECA)으로서의 수출입은행의 필요성,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촉진은행(BNVP)의 현황 및 향후 출범할 도미니카 수출입은행으로서 활동하기에 필요한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본 보고서의 기술은 도미니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수출입은행 개편안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2절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개발은행의 역할

196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된 한국의 고도 성장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서구선진국의 자유 시장 메커니즘이 아닌, 한국 정부가 선택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고찰이 불가피하다. 크루거(Krueger, 1985)는 1960년 초반 한국정부가 당시 고평가된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하고, 수출 지향적 정책을 전향적으로 택한 것을 한국경제발전의 중요한 시금석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의 개입방식도 유치산업 보호론이란 미명아래 단순한 수입 대체방식이 아닌 성과주의에 근거한 시장유인적 구조를 택한 것도 매우 잘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반면에 암스덴(Amsden, 1989)과 웨이드(Wade, 1990)의 경우에는 1960년대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에서 전달하는 시그널을 완전히 무시한 채, 정부가 나서서 육성할 산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보조금 지급, 무역장벽 설치, 행정지도, 공기업육성 및 신용할당 배분 등으로 향후 산업지도 재편에 지나쳤다고 폄하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당시 개입수준이 적정한지는 아직도 논란거리이기는 하나 당시 정부의 개입방식은 전적인 관리라기보다는 정부개입과 시장 유인적 구조의 중간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1960년대 초 한국정부가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한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선 당시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 1950년대 초 한국전쟁 여파로 해방 이후 그나마 남아있던 산업기반마저 파괴되어 변변한 제조업도 없는 상태에서 지속된 인구증가는 1950년대 후반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실업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한편 1950년대에 원유수입 등으로 외환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문제에 한국정부는 직면하고 있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수입을 억제하고자 한국의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고평가하는 정책을 택하고, 수입초과현상 해결을 목적으로 수입대체전략하의 경공업제품 성장전략을 추구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심각한 거시경제적 불안정이었다.

이후 1961년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전략의 최우선순위를 경제성장에 두고 이를 위한 수출기회 발견에 총력을 기울인다. 원유 등 천연자원생산이 부족해 늘 자원수입국이던 한국으로서의 수출이 유망한 외화 가득원이자, 일자리 문제 해결 수단인 상황이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1964년~1965년 중 한국 원화의 가치를 절하하고 수출보조금, 외화자금의 투자재원 활용, 기업 수출활동에 필요한 금융지원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무역촉

진을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이 결과 한국기업의 수출이 저평가된 원화, 당시 찾아온 세계무역 붐, 노동 집약적 상품에서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서서히 국제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박정희 정부가 오늘날 한국경제 성장의 근간을 마련하였는데, 당시의 경제개발정책은 수출에 대한 각종지원, 그리고 특정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지원정책(industrial policy)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하여 박정희 정부는 금융억압(금융기관의 국유화)과 수입을 억제하는 방향의 정책 기조를 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60년대에는 금융기관의 소유권과 인사권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특수금융기관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산업금융체제 확립과 장기설비금융을 확대한 시기로 철강, 기계, 전자, 조선, 석유화학공업이라는 5대 중화학공업과 수출주력업종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하에서는 대표적 정책이었던 1960년대의 수출진흥정책과,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육성정책, 그리고 수출확대 실현을 위한 정부와 재벌기업 간에 주된 의사조율기구인 준내부기구(Quasi Internal Organization, QIO), 또한 경제성장과 수출촉진의 주역을 담당했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순서대로 살펴본다.

1. 1960년대 수출진흥정책

박정희 정부는 집권초반 외환보유고 부족 문제에 직면하면서, 외화가득을 위한 수출진흥정책을 택하였다. 그 첫 번째는 1963년 1월에 실시한 ‘수출입링크제’이다. 동 제도는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잔액을 수입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동 권리는 3자에게 양도가 가능토록 제도화하여 기업들의 수출확대 유인을 진작시켰다. 두 번째로는 본격적인 수출 진흥을 위해 1964~1965년 중에는 환율을 평가절하 한다. 1964년 5월 발표한 환율개혁에서는 기존의 복수환율제도를 단일변동환율제도로 전환시키고 기준환율을 종전에 달러당 130원에서 255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였다.

이후 정부는 임시방편적 수출지원 수단인 직접보조금과 수출입링크제를 폐지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적이고 일관적인 수출유인체계를 마련하였다. 정비된 제도로는 정부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부합될 경우 승인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① 수출우대금융²⁾, ② 수출용 중간재수입에 대한 비관세 및 관세감면(관세 환급제) 조치, ③ 수출용 중간재투입과 수출판매에 대한 내국간접세 감면 조치, ④ 수출용 원자재수입 및 고정자산에 대한 가속감가상각 허용, ⑤ 수출실적에 따른 수입영업 허가링크제 등이 있다.

그리고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은행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예금은행의 총 대출 가운데에서 수출금융의 비중이 1961년~1965년 기간 중 4.5%에서 1966년~1972년에는 7.6%로, 1973년~1981년 중 13.3%로 계속 증가한다. 그리고 금리조건에서도 수출금융은 일반대출보다 크게 유리하였다. 특히 금리인상조치 기간(1966년~1972년) 중 무역금융 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무려 17%p 이상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2) 진성 신용장 제시 시 수출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대출이 가능해지고, 수출에 필요한 모든 원부자재 역시 수출용 원자재 소요증명과 수출상품의 선적증명이 제시되면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

〈표 1-1〉 예금은행의 무역금융 공급 추이

(단위: %)					
	1961~65	1966~72	1973~81	1982~86	1987~91
무역금융/ 예금은행 총대출	4.5	7.6	13.3	10.2	3.1
무역금융금리(A)	9.3	6.1	9.7	10.0	10~11
일반대출금리(B)	18.2	23.2	17.3	10~11.5	10~13
B-A	8.9	17.1	7.6	0~15	0~2.0

자료: 김준경,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1993

한편 수출축진을 위한 상기의 유인체계들은 정부가 설정하는 수출목표제와 대통령이 주재하는 월례 수출확대회의에서 기민하게 조율되어 실시되었다. 우선 수출목표제도(export targeting)란 정부가 매년 개별 기업별 수출 예상치를 집계하여 매년 당해 연도 국가전체의 총 수출 목표를 설정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 수치를 바탕으로 수출과 관련된 금융 규모, 사회적 접시실 확충필요 규모, 기타 지원 규모를 가늠하여 수출지원 역량을 총동원한다. 그리고 기업은 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지원액을 요청할 수 있다.

월례 수출확대회의란 전 각료와 수출업계대표들이 모여서 수출목표 달성여부를 점검·평가하고 그 실적이 부진할 경우 대응책을 모색하는 회의를 말한다. 동 회의개최는 무엇보다도 수출에 대한 국가 통치권자의 관심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업무를 수출 지상주의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한국무역협회가 발족되어 업계 차원에서 수출확대를 독려하였고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도 출범하여 해외네트워크형성, 수출마케팅, 시장정보수집 등을 담당하였다.

2. 1970년대 산업고도화 정책

박정희 대통령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년~1971년)에서 철강공업, 각종기계공업, 석유화학공업 등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 육성에 매진한다. 이것이 현재와 같은 반도체, 중공업, 선박, 자동차, 가전 부문의 수출기업을 보유한 삼성, 현대, LG 등을 탄생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집권초기 추진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수입대체 지향의 공업화를 시도하였으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고도화된 수출산업 영역확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경제개발 전략을 수정하게 되고, 1973년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제3차 경제개발 계획에서부터는 중화학공업 육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가. 추진 배경

정부가 이러한 산업구조 고도화내지 고유 수출산업 탐색을 결심하게 된 배경으로는 ① 취약한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의 혁파, ② 경공업과 중화학공업간의 연관효과 고취, ③ 고부가가치 수출상품개발을 위해서는 중화학공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에 기반이 되는 기본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1969년과 1970년에 각각 착공한 석유화학복합체와 종합제철소 건설, 그리고 1967년 들어 산업활동에 심각한 애로요인으로 부상한 동력·수송 난을 해결하고자 전력생산 확대와 1970년 북쪽에 위치한 수도권과 한국의 남쪽 끝에 위치한 제2의 항만도시를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완공, 서해안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호남고속도로 일부개통 등으로 물류망을 구축하는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 확충에 나서기도 하였다.

나. 중화학공업육성 지원책

한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중화학공업 육성을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선정업종에 대한 장기적 정책금융 공급과 조세유인 제공, ② 중화학공업에 요구되는 기술인력 공급을 위한 각종 전문학교와 직업교육기관의 확대·신설, ③ 필요한 기술개발을 담당할 정부출연연구소의 신설·확대 등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정책금융 지원이었다. 정부는 방대한 자금의 공급과 민간수출기업이 담당할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금융체제 전반을 통제하면서 저금리의 ‘무한금융배급’을 실시한다. 특히, 1974년에 조성된 ‘국민투자기금’은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재원 배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화학공업 육성에 필요한 장기 투자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민투자기금을 조성하였다. 동 기금의 재원은 은행을 중심으로 보험회사·공공기금 등의 출연을 통해 조성되었다. 국민투자기금 설립 초기에는 은행과 보험회사가 각각 예금증가액의 일정비율(10~30%)과 보험료총수입액의 일정비율(40~50%)을 예탁토록 하였으며, 공공기금에서는 총여유자금의 90%를 국민투자기금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였다.

1974년~1981년 기간 중 이렇게 조성된 기금액에서 예금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74%, 그리고 보험회사가 14%, 공공기금이 12%를 차지하였다. 국민투자기금은 동 재원을 금융기관에 대여하고 실질적인 자금집행은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통상 국민투자기금 자금의 대출기간은 8년~10년이었고, 대출 금리도 1982년까지는 예금은행의 일반 장기대출금리보다 5%p 낮게 운영되었다.

1974년~1991년 중 동 기금의 총지원액은 7.5조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80%는 특수은행·개발금융기관이 담당하였고, 나머지 17%는 시중은행이, 그리고 3%는 지방은행이 지원하였다.

〈표 1-2〉 예금은행의 무역금융 공급 추이

(단위 : 10억원, %)

년도	공공기금	개발은행*	보험사	합계
1974	11.5 (16.5)	41.0 (58.7)	17.3 (24.8)	69.8
1975	28.3 (16.3)	99.8 (47.4)	45.8 (26.3)	173.9
1976	53.6 (15.6)	208.8 (60.6)	82.1 (23.8)	344.5
1977	99.0 (18.9)	317.2 (60.6)	107.0 (20.5)	523.2
1978	153.6 (18.5)	528.8 (63.8)	145.8 (17.6)	828.3
1979	218.0 (18.1)	802.0 (66.5)	185.1 (15.4)	1,205.2
1980	309.4 (21.1)	922.5 (63.0)	233.1 (15.9)	1,465.0
1981	385.0 (20.7)	1,226.0 (65.8)	251.4 (13.5)	1,862.4
1982	422.4 (17.4)	1,739.7 (71.7)	263.4 (10.9)	2,425.5
1983	462.5 (16.7)	1,925.5 (69.5)	382.5 (13.8)	2,770.5
1984	273.0 (9.4)	2,159.5 (74.4)	469.2 (16.2)	2,901.7
1985	185.2 (6.4)	2,261.0 (77.8)	459.2 (15.8)	2,905.4
1986	116.4 (4.2)	2,321.3 (83.2)	352.0 (12.6)	2,789.7
1987	103.5 (3.9)	2,268.8 (86.4)	254.0 (9.7)	2,626.3
1988	109.6 (4.3)	2,297.3 (89.3)	165.8 (6.4)	2,572.7

주: 연말 잔액 기준, *개발은행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의미하며, ()는 비율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투자기금 개관(Overview of the National Investment Fund), 1989

〈표 1-3〉 은행별 국민투자기금 집행 실적

(단위 : 10억원, %)

	1974~1981	1982~1991	1974~1991
특수개발은행	2,038 (81.9)	3,958 (79.3)	5,992 (80.2)
산업은행	1,535 (61.8)	1,603 (32.1)	3,138 (42.0)
수출입은행	208 (8.4)	805 (16.1)	1,013 (13.6)
기타	291 (11.7)	1,552 (31.1)	1,841 (24.6)
상업은행	4.5 (16.3)	851 (17.1)	1,256 (16.8)
지방은행	46 (1.9)	182 (3.6)	228 (3.1)
합계	2,484(100.0)	4,991 (100.0)	7,474 (100.0)

자료: 한국은행, 국민투자기금 통계

1974년~1981년 기간 중 당시 대표적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지원 비중은 62%이었으며, 전체 금융기관설비자금 대출액에서 국민투자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7%에 달하기도 하였다. 결국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설비투자 확충에는 국민투자기금, 그리고 이를 주로 집행한 산업

은행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반면에 1982년 들어서부터는 국민투자기금 지원액 중 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폭 감소되고 수출입은행과 특수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민투자기금의 지원대상이 종전의 특정업체에 대한 설비자금지원 위주에서 불특정 다수업체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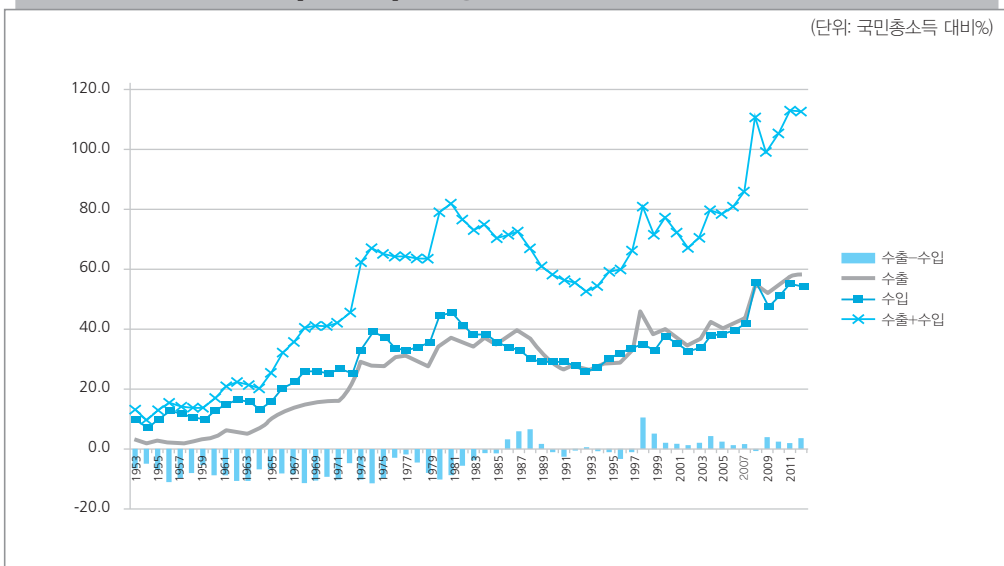
〈표 1-4〉 중화학공업에 대한 국민투자기금 대출금 비중

(단위: %)		
	국민투자기금 대출금/ 전 금융기관 대출금	국민투자기금 설비자금/ 전 금융기관 설비자금
1974~1981	18.4	56.8
1982~1991	14.4	37.0
1974~1991	16.2	45.8

주: 연말잔액 기준. 전 금융기관은 예금은행과 산업은행 포함
 자료: 김준경,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1993

1960년~1980년 중 우리나라의 수출은 위에서 정리한 정부의 각종 수출 지원책, 전후 세계 경제의 가파른 성장과 이에 따른 수입 수요의 확대, 우리나라 인적 자본의 빠른 축적 등에 힘입어 급격히 증가하였다. GDP 대비수출(재화와 서비스) 비중은 1960년대 초반 6% 수준이던 것에서 1966년에 11.9%로 상승하였고 1973년 29.3%, 1980년 34.0%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상승하였다. 또한 수출과 수입을 더하여 산정하는 무역의존도는 1960년대 전반 20%대에서 1966년 32.2%, 1973년 62.3%, 그리고 1980년 78.9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1-1] 한국경제의 수출 및 수입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한국 정부의 수출 진흥책은 수입대체와 무역장벽 구축이라는 내국산업보호보다는 대외개방정책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경제발전이라는 선순환을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대외개방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논거로는 ① 전세계시장의 여러 나라들과의 비교과정에 서로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생산을 특화, ② 확대된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을 단행하는 데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③ 국내시장 안주 시 보다 높은 수준의 경쟁에 직면하는 데 따른 생산성 향상 유인의 발생 등이 지적(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2007]) 되었다.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고 이를 가공한 제품의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야 하는 한국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생존의 원동력을 세계시장을 상대로 하여 비교우위 제품을 찾아내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경제개발 초기단계였던 당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수출은 제품개발·생산·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귀중한 학습기회의 장이기도 하였다.

한편 로드리크(Rodrik, 1995)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정부의 수출촉진정책보다는 산업투자내지 고도화전략이 더 중요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당시 고도성장을 견인한 요인으로 수출, 투자정책 어느 하나가 결정적이라기보다는 두 정책 모두 경제성장 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준내부기구(QIO)와 개방지향 정책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자본시장 시스템, 즉 주식이나 채권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았다. 따라서 1960년도 경제개발초기에 정부가 은행시스템과 보조금 지급시스템을 통제하고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 기업들로 하여금 정부가 설정한 목표로 역량을 매진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이 되었다. 정부정책에 순응하는 업체에게는 신용할당 방식으로 필요 자금을 제공하는 반면에 정부정책에 반하는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투자 유인을 저하시켰다.

한편 이러한 정책수행과정에서 필수적인 국내외시장 환경에 대한 정보들을 한국의 경우 시장이 아닌 준내부기구(QIO)란 토론그룹³⁾을 통해 획득하고, 정부와 기업 모두 국내외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60년~1970년대에 한국정부는 정부와 소수의 대형기업군(재벌) 간에 계층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준내부조직, 준내부기구(QIO)를 구성하고 여기에 속한 멤버인 기업군에게 신용을 우대하여 할당하였다. 그리고 다른 개도국들이 준내부기구(QIO) 참여기업의 범위를 고정시킨 것과는 달리 한국은 수출기업의 성과에 따라 매년 정부가 준내부기구(QIO) 멤버의 선발과 추출을 탄력적(flexible)으로 운영한 점에서 차별화된다.

3) 정부와 기업 간의 계층적인 관계는 "토론 그룹"(구체적으로는 무역협회)을 통하여 평상시에도 유지되었고, 기업의 생산·판매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준내부기구(QIO) 멤버간에 주고 받았다. 완전경쟁시장인 경우 가격 변화가 향후 수요공급의 불일치 조정에 대한 신호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겠지만, 개도국에서는 시장이 불안정하여 가격의 신호 기능이 미흡하다. 경제발전이 미친한 1970년대 한국의 시대상황에서 준내부기구(QIO) 멤버간 "토론 그룹"은 이러한 시장정보 전달상의 문제점을 훌륭하게 극복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러한 준내부기구(QIO) 멤버에 대한 우대 신용할당의 전제조건으로 금융기관들을 정부의 통제 하에 두고 필요한 기업 내지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마치 선진국에서 대형 다조직(multi-unit) 내부의 자금운영부가 사업단위별로 발생하는 부족분 또는 잉여 자금의 미스매치를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연계시켜 외부의 자본시장의 비효율성 내지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한편 준내부기구(QIO) 멤버인 기업들은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에 협조하는 대가로 1970년대를 거치며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준내부기구(QIO) 멤버인 오늘날의 재벌기업과 비 멤버인 중소기업을 분리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이중 잣대를 사용하게 된다. 한편 이 결과 1975년~1978년간 주식 시장에 상장된 상위 50위, 그리고 상위 100위 기업이 전체 제조업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2.9%와 73.9%로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존스 및 사공(Jones and Sakong, 1980)은 준내부기구(QIO) 내에서 한국 정부와 재벌 간의 관계를, 민간기업에서 수석 파트너와 주니어 파트너간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묘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윌리엄슨(Williamson, 1975)은 준내부기구(QIO)가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하는 자본 시장 미비란 난제를 극복하는 기구로 성공적일 수 있었던 배경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상하명령식의 계층적구조(hierarchical structure)가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 비용을 최소화하여 준내부기구(QIO) 내에서의 의사결정을 합리화할 수 있다. 둘째, 준내부기구(QIO)와 같은 내부조직은 예상치 못한 외부의 돌발 사태에 대하여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 돌발사태 발생이 거대조직이거나 구성원이 많은 경우 이해관계조정이 지연되면서 사태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게 된다. 반면에 소수의 멤버로 구성된 준내부기구(QIO) 멤버들은 관련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 조율과 이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찬들러 주니어(Chandler, Jr., 1977)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준내부기구(QIO)가 선진국 대형 다조직회사와 유사점이 있으며, 이것이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한다. 첫째 준내부기구(QIO)는 다조직회사 내 각 구성 부서의 활동, 그리고 이들 부서 간 거래를 내재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는 양 조직의 경우 구성단위(unit)들의 활동은 시장이 아닌 내부의 통제기구, 정부의 관료 또는 다조직 회사의 관리팀에 의해 모니터링 된다. 이러한 조직운영상의 효율성이 한국의 준내부기구(QIO)에서는 국가의 경제발전, GE(Geneneral Electric)의 경우에는 기업의 이익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에 매우 유용했다고 한다.

반면에 준내부기구(QIO) 멤버인 기업들이 정부가 우대하여 공여한 신용을 국가경제발전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전용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딜레마가 있다. 또 다른 준내부기구(QIO)의 약점으로는 내부 멤버들 간 밀실합의로 향후 육성산업, 기술, 제품 기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선택되는 것보다 오류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약육강식의 경쟁과정에서 최상의 기업, 기술, 제품이 선택되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준내부기구(QIO) 멤버를 고정시키지 않고 수출실적 베이스로 멤버의 진입과 탈퇴를 조절하는 가운데 상당부분 희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준내부기구(QIO) 멤버 선정과 관련하여 오류가 전혀 없진 않았지만 그 수준은 상당히 미

미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오류가 적었던 또 다른 이유로는 외부지향적(outward oriented development) 수출정책을 택한 것도 지적되고 있다. 즉 해외시장을 상대로 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과 제품만을 정부가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준내부기구(QIO)를 탄력적으로 운영한 것은 시장의 경쟁구조를 어느 정도 도입한 것으로 보여 진다.

반면에 한국과 달리 대다수 개발도상국에서는 내부지향적 개발전략, 즉 내수시장육성 내지는 수입대체 지향적인 산업정책을 택했고, 준내부기구(QIO) 멤버를 고정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료와 공기업간의 유착, 산업정책 실패, 공기업 부실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수출주도형 성장정책 추진과정에서 해외수요자들에 의한 기업과 제품의 선택이 이루어져 이러한 오류가능성을 낮추었고, 대신에 준내부기구(QIO)를 통한 구성원 간의 사결정 조율성,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효율적인 정보전달 기능 수행이라는 장점이 극대화되면서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도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수출기업으로 그간 성장한 대기업의 경우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면서 정부에 대한 자금의존도가 떨어지고 이들 대기업들의 주력업종도 다양해지면서 전문화되자 정부 관료의 모니터링, 즉 준내부기구(QIO)를 통한 통제력에 한계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그 역할을 마치게 되었다.

4.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전반기(1962년~1971년)는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실물성장 에 중점을 둔 개발금융이 펼쳐지던 시기로 전 방위에 걸쳐 수출산업을 지원하였다. 다만 전반기의 속성장 수출산업은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공업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경제개발 후반기(1972년~1979년)에 한국정부는 부가가치와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철강, 기계, 전자, 조선, 석유화학공업이라는 5대 중화학공업을 선별하고 이들을 수출주력업종으로의 육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집행의 주요 기구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활용되게 된다. 이하에서는 위 기간 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각각 순서대로 살펴본다. 먼저 한국산업은행이다.

가.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은 경제개발 전반기(1962년~1971년)중 4차례에 걸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개발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특히 4번의 법 개정 과정 중 3차례에 걸쳐 자본금을 확대하였고, 한국은행 및 외국자본의 차입을 허용하는 등 한국산업은행의 재원조달 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또한 여신대상 거래처를 확대하는 한편 주식 및 회사채 투자방식으로 자금공급도 허용하는 등 자금공급 기능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러한 법 개정을 바탕으로 산업은행은 국제수지에 대한 기여도와 국민생활의 필수품생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금을 공급한다.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업체, 국

내 원재료 의존도가 높아서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체에 대해 자금공급을 확대하였다. 또한 산업은행은 재정자금을 재원으로 정부의 주요 전략시책사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담당하였다. 당시 지원한 전략시책사업에는 전력, 석탄, 조선 등 기간산업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 농어촌전환사업, 상수도사업, 철도건설사업 등이 주를 이루었다.

경제개발 후반기인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1972년~1976년)과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1977년~1981년)에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목표는 중화학공업육성이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소위 5대 중화학공업인 철강, 기계, 전자, 조선, 석유화학공업과 수출주력업종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산업은행은 그 중에서도 산업간 전후방효과가 크고 중화학공업의 중간재로서 필수재를 생산하는 철강산업을 초기생산단계부터 상품화단계까지, 나아가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조선산업과 전자산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대형조선소와 반도체공장 등을 건설하여 양산업이 모두 수출산업으로 발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기계공업육성시책에 따라 특정 기계공업부문과 국산화대체품목 생산부문에도 자금을 공급하였다. 한편 중화학공업육성에는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로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장기설비금융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장기설비자금 공급방식은 1970년대 초반 중화학공업 육성 초기에는 정부출자에 의한 주식투자를 통하였고, 1970년대 후반에는 중화학업체의 운영자금 수요가 급증하자 사채인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중화학업체들의 원리금상환을 위하여 일반운영자금으로 공급하거나, 특별외화대출제도를 통하여 기업의 외채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식도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나. 한국수출입은행(KEXIM)

중화학공업 기반이 취약한 여건 하에서 정부가 추진한 경공업 위주의 수출지향 성장전략은 1960년대 후반 들어서 국제수지 악화 및 외채 증가, 투자 부실화와 같은 구조적인 한계를 노정시킴에 따라 향후 지속가능한 고도성장을 위해서 중화학공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화학공업 육성은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초기단계부터 수출산업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당시 세계 자본재시장은 공급자시장에서 구매자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수주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었다. 이 결과 수출대금을 장기에 상환하는 연불조건부 파이낸싱이 일반화되면서, 각국별로는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수출업자에게 유리한 연불조건부 수출신용장 시장에 대한 경쟁이 강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수출신용경쟁은 선진국의 공적 수출신용기관(ECA)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선진국들은 자국의 자본집약재화 수출을 촉진시킬 의도로 중장기 연불수출금융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공적 수출신용기관을 설립해왔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은 한국의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서 중화학공업 제품의 연불수출을 지원하라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1969년 제정되었다. 사실 수출입은행법 제정 이전에는 수출금융 업무를 한국은행이 대행해 왔으나 그 지원규모와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1969년 동 법 제정 이후에도 수출입은행 업무는 당시 외환업무를 전담하던 외환은행이 대행하는 체제를 택하였다.

그런데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년~1976년)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던 한국정부는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국제무역 환경이 악화되고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한다. 그리고 수출입은행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1974년 수은법을 개정하게 된다. 당시 수은법 개정에서 정부는 주요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해외시장 개척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자원 개발자금을 수출입은행에 신설하고 수입자금과 해외투자자금 및 해외사업자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중화학공업에 대한 육성정책에 힘입어 제3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이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보인다. 그리고 이 결과 선박업 등에서 연불수출금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외환은행의 대행체제로는 효과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연불수출금융 전담 기관인 수은의 별도 독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1976년 7월 한국은행이 일부 출자하고 한국외환은행의 수출입은행 계정에 올라 있던 재정자금 대출금을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으로 전환시킨 뒤 연불수출금융 전담기관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KEXIM)을 정식 발족한다. 출범 당시 한국수출입은행(KEXIM)은 3부 1실의 작은 조직과 전체 임직원은 80명의 소형 기구이었으나 개발도상국 가운데에서는 중장기 연불수출금융을 전담하는 최초의 기관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한국은 한국수출입은행(KEIXM) 설립으로 그간 자본수입국이라는 열등한 지위에서 탈피하고, 오히려 자본재 수출과 해외투자를 추진하고 대외경제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발판을 구축하게 된다.

1976년 수출입은행은 법정자본금 300억원으로 출범하였으나 출범 직후 연불수출과 해외투자 지원에 필요한 자금수요를 집제한 결과 지원희망 수요가 예상외로 큰 것으로 파악되자 정부는 1977년 제2차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을 1,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당시의 2차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수출입은행은 자본재 수출 및 해외투자에 대한 지원체제를 완비하고 자금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업무기반을 공고히 하였다.⁴⁾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으로 한정되었던 수출금융업무는 직접대출, 전대금융까지 포괄하면서 다양해졌고, 보증업무와 외국환업무 비중 또한 확대되었으며, 1977년 취급하게 된 수출보험업무로 명실공히 수출금융 전담지원기관으로

4) 구체적으로 수입자금의 경우 연불수출에 필요한 원재료 등으로 국한되었던 지원 대상 범위가 해외 수출입시장의 확보 및 개척에 필요한 중요 물자로 확대되고, 지원 가능한 중요 물자의 종류도 구체적으로 지정하였다. 해외투자자금의 지원대상도 종전의 수출용 원자재 및 필수적인 기초 기자재의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에 더하여,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거나 해외 교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산업 및 해외수출입시장의 확보와 개척에 기여하는 사업 등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해외에 제공되는 기술의 범위에 해외건설공사를 포함시킴으로써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장기 연불수출금융을 포함한 수출입은행 자금의 상환기간을 6개월 이상 5년 이하에서 6개월 이상 10년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신설된 주요 자원 개발자금과 대외경제협력자금의 대출기간은 20년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은 외국과의 경제교류 촉진에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촉진으로 확대하면서, 수출입은행에 한국경제의 중화학공업화와 국제화를 뒷받침하도록 새로운 임무를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의 자금조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부는 법정자본금을 상기와 같이 확대하였고, 출자자의 범위도 정부 외에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수출업자의 단체 및 국제금융기구로 확대한다. 또한 소요자금의 국내 차입선도 출자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해외 차입의 경우 외국의 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외에 외국 정부로부터의 차입을 허용하였으며, 아울러 원화표시 수출입금융 차권을 국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서의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위 기간 중 수출입은행의 대출승인 규모는 1976년의 1.9억달러에서 1977년 2.8억달러, 1980년 3.9억달러, 1984년 13.2억달러로 급증하여 1985년 말까지 총 65.9억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한국경제는 선박과 플랜트를 중심으로 중화학제품의 본격적인 연불수출 시대가 개막되고 중화학공업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었고, 해외투자는 정착단계를 거쳐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제3절 도미니카공화국 수출금융기구 설립 자문

1. 도미니카공화국 수출금융기구 설립의 필요성

20세기 후반에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산업정책에 대한 금융지원 수단으로 사용되는 공적 수출신용기관(ECA)은 자국의 수출촉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재원으로 상업금융이 제공을 꺼리는 영역에 대하여 대출, 보증, 보험을 제공하는 기구이다.

이러한 공적 수출신용기관(ECA)의 설립 필요성은 시장실패의 보완, 개도국 경제발전 지원 및 경쟁국 수출금융지원에 대한 대응 등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70여개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내에서도 28개국에서 공적 수출신용기관(ECA)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공적 수출신용기관(ECA)은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발전초기에는 단기, 수출금융, 직접금융 위주의 지원을 담당하지만, 경제구조가 선진국화됨에 따라 중장기, 종합금융, 간접금융으로 지원방식은 변모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의 공적 수출신용기관(ECA)은 아직까지도 단기무역금융 위주이고, 공적 수출신용기관(ECA) 미보유국가의 경우 자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는 국영기업 및 그 합작회사들은 국영 상업은행과의 특수 관계에 따라 자금조달이 용이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순수한 민영기업은 시장이나 은행에서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의 수출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체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자국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수출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는 수출보조금과 같은 정부보조금 지급이 금지되게 되었다. 이러한 현행시스템에서 경제개발을 추구하는 개도국의 경우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수출금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촉진은행(BNVP) 및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 전환 추진 현황

도미니카 정부가 향후 설립할 수출입은행의 모태가 될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촉진은행(BNVP)은 1962년 설립된 국책은행으로서 현재는 자본금 1억 5천만달러, 자산 4억 8천만달러 규모이며, 시중은행을 통한 간접금융(On-lending)과 차주에 대한 직접금융, 그리고 도미니카공화국의 무역금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모기지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모기지 유통화증권 활성화 업무,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담당하는 저축대부조합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런데 저축대부조합에 대한 감독기능은 2002년 법 개정으로 중앙은행으로 이관하고 대신에 중앙은행의 정책금융 업무가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촉진은행(BNVP)으로 이관되어 2000년대 들어서는 주택금융과 정책금융 업무를 병행해오고 있었다.

상기의 법 개정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촉진은행(BNVP)은 정책금융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나 그간의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촉진은행(BNVP)의 업무 내력으로 볼 때 정책금융보다는 주택금융업무를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KSP는 정책자문 과정에서 수출금융에 주력할 것을 요청하였고,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촉진은행(BNVP)은 이를 수용하여 주택금융 업무 비중을 완만하게 축소시켜 왔다. 특히 KSP 자문에 따라 수출입은행으로 전환을 앞두고 2013년 하반기부터는 수출입금융에 더욱 주력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분리·이양시키는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퇴직(300여명) 및 조직 축소, 그리고 그간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촉진은행(BNVP)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모기지대출 업무 축소에 따른 재원부족 등으로 다소간의 진통이 발생하였다고 알려지기도 하였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CEI-RD)을 중심으로 2013년 9월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촉진은행(BNVP)의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입은행으로의 전환 관련 법안의 초안을 완성하고 2014년 2월에는 대통령이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입은행(BANDEX 혹은 DEXIM) 전환을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입은행(BANDEX 혹은 DEXIM)출범을 공식화하였다. 2014년 3월말 현재 상기 법안⁵⁾은 도미니카공화국의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되어 있으며 국회 농업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도미니카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연내에 수출입은행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2014년 2월 방한한 도미니카 공화국 수출투자청(CEI-RD)대표단이 제시한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촉진은행(BNVP)의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입은행(BANDEX 혹은 DEXIM)으로의 전환 일정표에 따르면, 불필요한 기존인력의 감축,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촉진은행(BNVP)의 기존 모기지대출업무의 매각, 정부의 자본확충 등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5)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입은행법에는 향후 발생할 금융수요를 탄력적,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조율될 필요가 있음.

6) 2014년 4월 도미니카 최종보고회 때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CEI-RD)이 제출한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촉진은행(BNVP)의 이전계획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으로의 전환은 적극 추진되고 있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촉진은행(BNVP)의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입은행(BANDEX 혹은 DEXIM)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수출 계약건을 근거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영업체계를 전환하는 측면에서 수출금융 체계를 갖춘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출관행을 살펴볼 때 대출건당 그 한도가 크지 않았고, 담보부대출 형태이었으며,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촉진은행(BNVP)의 점포부족으로 직접 대출이 어려워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여하는 간접지원(온렌딩)방식이라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실제로 이전 KSP(2008) 조사에 따르면 도미니카의 수출기업들의 상당수가 금융기관의 낮은 대출한도를 애로사항으로 토로하고 있었으며, 주요원인 중 하나로 담보부 관행에 기업들의 물적 담보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촉진은행(BNVP)이 온렌딩 형태로 대출을 지원하다보니 시중은행을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 마진이 발생하는 등 대출조건이나 신속성 면에서 수출업자에게 유리하지 못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따라서 향후 출범할 도미니카공화국 수출금융기구에는 수출금융과 관련한 여신심사, 리스크관리 등의 내실화가 주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편 도미니카의 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 비중이 낮고, 수출주력상품도 노동집약적 상품이거나 농산물 비중이 높아 GDP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 이로 인해 향후 출범할 도미니카공화국 수출금융기구가 담당할 수출금융업무는 단순한 무역신용제공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도 없지는 않다. 만약에 도미니카공화국 수출금융기구가 출범하고, 공적 수출신용기관(ECA)의 업무기반이 구축되었는데도 도미니카의 경제성장이 더디다면 이 경우에는 한국의 한국산업은행을 벤치마크하여 도미니카공화국 기간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설비투자금융기관의 역할을 병행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향후 개선과제

가. 단기 과제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입은행이 2014년 중 출범할 경우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아래의 세 가지이다. 첫째는 현재의 담보부대출 영업에서 실질적인 신용장 내지 과거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금융지원으로의 전환이다. 둘째는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여하는 간접지원방식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이 직접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셋째는 수출금융의 건당 대출규모 확대 내지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이다. 이후 2년~3년 뒤에는 수출금융 수요증가세를 살피면서 후술하는 중장기과제를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상기 문제점 해결책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

첫째 현재의 담보대출 위주 관행 탈피와 신용장에 근거한 대출심사 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과도한 담보요구 조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물적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신용이 양호하거나 신용장을 구비했거나, 수출신장률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100% 담보를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액의 50%만 대출한도를 소진하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기존 대출한도가 2배로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수출증가율이 일정수준(평균 20% 이상)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전년 대비 일정비율씩 증가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담보대출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신용평가시스템의 내실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신용평가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현재의 담보대출 위주 관행에서 탈피하고 신용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 위주의 대출에 주력하는 개발도상국의 금융관행에서 신용평가시스템을 정착시키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행기간인 과도기에는 단순한 형태의 정성평가내지 추정재무제표 상의 수치를 활용한 정량평가시스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은행내규의 구축, 기업평가기법 도입, 산업 및 업체별 대출조건과 담보인정 비율 설정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심사 및 평가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유기적인 관련을 위해 산업분석과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리스크관리의 초기단계로 약정관리, 담보관리, 동태관리에 대한 내규 마련도 필요하다. 한편 신용장 분석, 신용평가시스템 도입 그리고 리스크관리와 관련해서는 향후 KSP사업을 통해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입은행(BANDEX 혹은 DEXIM)에 대해 체계적으로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장기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이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간접지원방식(도미니카 용어로 2nd floor banking)을 탈피하여 수출주력기업들이 위치하는 지역, 예를 들어 대규모 수출자유무역지대를 시발점으로 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의 점포를 확대하고 직접금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⁷⁾ 이 경우 온렌딩(on-lending)방식 하에서 상업은행에 지불하던 마진(3~5% 상당)을 축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조건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수출업자에게 저리 자금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재 온렌딩하 대출 금리인 18%로는 수출 진작 유인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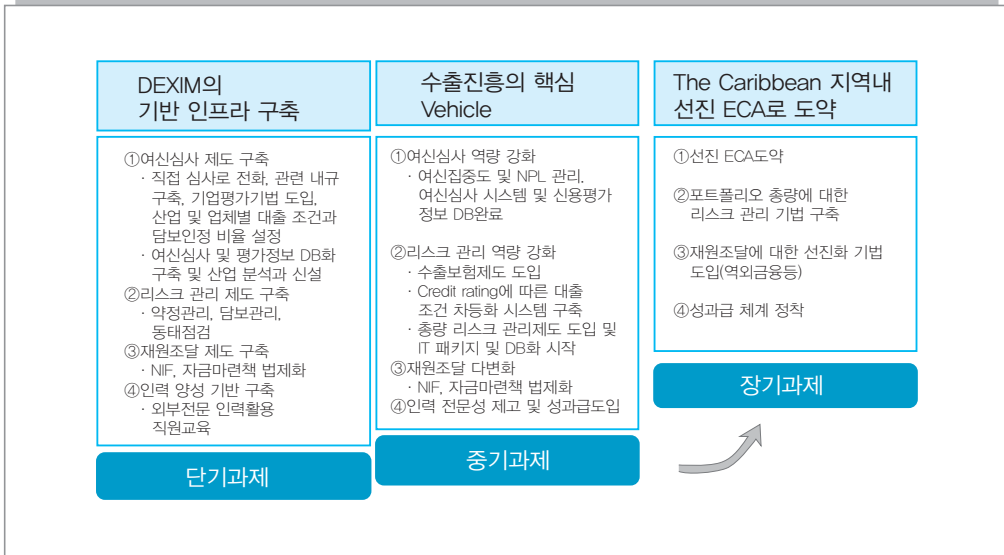
셋째, 수출산업과 정부가 육성하려는 주력산업에 대한 재원지원 확대방안이다. 현재 전환될 도미니카 수출입은행의 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국제차관 내지 대출전문기금을 활용하여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⁸⁾ 나아가 주력산업 진작을 위해서는 1970년대 한국에서 도입한 국민투자기금과 같은 별도의 산업정책 내지 수출기금(Export Fund)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은 국가개발계획인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수출확대를 위하여 과거 의류 중심의 산업구조를 의류 및 바이오산업, 농산물가공업, IT 등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상기의 수출기금이 우선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출업체에 대해 유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수출증가율이 높은 기업, 고신용 기업, 정책적으로 육성 필요성이 높은 산업군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에 비해 대출조건을 우대하는 메커니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7) 한편, 2014년 4월 한국 대표단의 최종보고회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의 금융관련 규제가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축진은행(BNVP)이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농산물, 농산물가공 분야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위한 점포의 신규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관련해서 대표단은 향후 출범하는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은 잠재 수출업자에 대한 자금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규 지점을 개설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이 필요함을 권고 하였다.

8)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의 자본금규모는 한국수출입은행(KEXIM)의 설립당시 자본금(당시 수출 100억달러 미만)을 고려할 때 30~50백만달러 규모가 적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외에 연간 운영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국내외 채권발행,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로부터의 지원, 다자간개발은행 차입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것이 KSP(2008)에서 제안된 바 있다.

그리고 상기의 단기과제들은 아래의 4가지 면에서 유기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다른 아
 닌 은행의 고유한 기능인 여신심사, 리스크관리, 재원조달과 인력양성이란 프레임이다. 참고로
 아래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 수출금융기구의 발전전략을 위 프레임 하에 단기, 중기, 장기로 나
 누어 표로 제시해 보았다.

[그림 1-2] 도미니카공화국 수출금융기구의 발전전략



나. 중장기 과제

향후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입은행(BANDEX 혹은 DEXIM)이 제자리를 잡고 정부의 희망대
 로 수출규모가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출입 금융상품 도입이 필요하다. 개발도
 상국들이 초기 경제발전 단계를 벗어나 무역거래가 증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출입과 관련
 된 다양한 금융수요가 출현하게 된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수출금융제도는 주로 평
 균 6개월 이내의 수출 거래건별 단기 수출금융에 집중됨에 따라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그리고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은 수출장려 품목인 경우 수출을
 위한 수입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가 관건이므로 이를 위한 별도의 수입금융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신용위험 관리 및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무신용
 장 방식의 국제거래 증가, 주문처의 파산 등으로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제도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아
 래에서는 세 가지 중장기 과제를 서술한다.

첫째, 다양한 수출입 금융상품을 도입해야 하며,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이 시행해온 포괄수
 출금융과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운영을 제안한다. 수출이 증가하면서 뒤따르는 다양한
 금융수요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수출확대가 제한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

기 위해서는 대출자금의 용도를 특정 수출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과거 수출실적 및 향후 수출 예상액 등을 감안하여 포괄적으로 대출금액과 사용 한도를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대출기간에 따라 포괄수출금융을 단기포괄수출금융(6개월)과 중기포괄수출금융(1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규모 및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해볼 때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의 1인당 GDP 등 경제규모와, 1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수출주력품이 농산품위주(사탕수수, 커피원두, 담배, 카카오 순)인 점을 고려할 때 출범할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입은행(BANDEX 혹은 DEXIM)에 여신을 요청할 기업들의 프로파일은 한국의 중소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즉 이들 중소기업의 매출규모, 종업원 수 등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수준에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⁹⁾ 따라서 수출입은행이 신용도 또는 담보력이 취약한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기업들의 수출이행능력과 수출거래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제도가 도미니카공화국의 현 단계에서 적합한 여신상품이라고 판단된다. 향후에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입은행(BANDEX 혹은 DEXIM)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사정에 적합한 수출금융 상품 개발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용위험 관리 및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도미니카의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축진은행(BNVP)은 2009년에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으로부터 리스크관리 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뒤 여신한도 관리와 기본적인 신용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신용장취급 실적도 미비하고 신용평가기법이나 관련 데이터가 구축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 이러한 시스템은 무역여신을 제공한 뒤에도 일정기간 대출기업의 원리금상환 현황을 추적하면서 사후에 자료를 축적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축진은행(BNVP)은 리스크관리 초기 단계로 대출금리 산정 시 신용위험 가산율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여신한도 설정과 충당금 적립액 결정 시에도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아직 신용등급 활용이 낮은 상태로 판단된다.

그러나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축진은행(BNVP)이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으로 개편되고 영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려면 수출금융 확대가 불가피한데,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금리 산정 시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위험 프리미엄 반영(가산 및 차감)과, 여신한도 설정 및 충당금 적립액 결정 시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기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여신규모가 증가할 경우, 특히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이 상정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여신을 확대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할 부실여신(Non Performing Loan, NPL)과 특정업체에

9) 2014년 4월 한국대표단의 최종보고회에서 향후 출범할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은 앞으로 수출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은 있지만 신용등급이나 업력이 미약한 가족 단위의 소규모 업자에게 자금을 집중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받았다.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이 자금지원을 이들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주요 배경으로는 도미니카의 민간은행들이 이들 가족기업들에게는 담보부족 등을 이유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이들 기업의 발전 및 수출기업으로의 성장 기회가 박탈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은 이들 기업의 원금상환 및 사업내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하고 향후에 이러한 기록을 상업은행에 제시함으로써 민간을 통한 자금중개를 지원하는 마중물의 역할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 여신집중도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여신규모가 확대될 경우 총량 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패키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이 병행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출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국제거래에서 무신용장방식 거래 증가, 금융위기 등에 따른 주문처의 파산 등으로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보험제도가 필요하다. 국제경쟁의 가속화속 수출증대를 추진을 위해 신용장 조건부 수출은 물론 수출환어음(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 디피어음(Document Against Payment, D/P)과 같은 무신용장 거래 및 중장기 연불거래를 확대하고,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고위험 국가로까지의 진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수출 진작 정책의 이면에는 미회수 수출 대금액의 증가와 같은 위험요소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보험제도의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고영선,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2008.
-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진흥청, <http://www.cei-rd.gov.do>.
-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 “자료집”, 2012.
- 한국개발연구원, “2008 경제협력 전략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도미니카공화국, 오만, 우크라이나, 터키, 아제르바이잔”, 2008.
- 한국개발연구원, “2010년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수출진흥”, 2011.
- 한국금융연구원, “산업은행의 성장과 발전”, 2013. 9.
- 한국수출입은행, “수출금융관련 강의집”, 2012.
- Amsden, Alice H., “The Specter of Anglo-Saxonization Is Haunting South Korea” in L-J Cho and Y. H. Kim (eds), “Korea’s Political Econom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Westview Press, Boulder, 1994.
- Chandler, Jr., A.D., “The Visible Han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 Williamson, Oliver E., “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1975.

제2장 무역센터의 개발 및 출범

이 홍 식 (고려대학교)

< 요약 >

2008년 이후 지속된 KSP의 수출신용역량 강화 작업과 도미니카 정부의 노력으로 수출 지원금융기관인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입은행(BANDEX 혹은 DEXIM)의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과거 한국의 경험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촉진이 필요하고 이를 담당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1960~80년대 한국의 개발경험 사례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수출 진흥 및 산업고도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발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한국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집권초기에 금융억압과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진흥하는 방향의 경제개발 계획정책을 택하였다. 구체적으로 1960년대에는 금융기관의 소유권과 인사권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특수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신설하여, 수출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임 기간 중 실시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년~1971년)에서부터 박정희 정부는 철강공업, 기계공업, 석유화학공업 등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기로 결정하고 이들 산업의 수출증가를 위하여 세계 혜택 등 각종 지원과 자금을 제공하였다. 이것이 오늘날의 반도체, 중공업, 선박, 자동차, 가전분야의 수출기업을 보유한 삼성, 현대, LG 등을 탄생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1960년~1980년 중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에는 개발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주로 활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은 주요전략시책에 대한 자금공급과 중화학공업 육성에 필요한 장기설비금융을 주로 담당하였고, 수출입은행은 한국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불수출금융을 담당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20세기 후반에 경제발전을 이룬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수출 확대를 위해 조세혜택과,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을 실시해왔다. 그리고 특히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은 각국의 공적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ECA)이 담당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출산업육성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려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있어서 도미니카공화국 수출금융기구는 반드시 필요한 기구이다.

관련하여, 이제 공적 수출신용기관(ECA)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도미니카공화국 주택생산축진은행(BNVP)이 수출금융기구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2014년 중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아래의 세 가지이다.

첫째는 담보부대출보다는 신용장 내지 과거 수출실적에 근거한 실질적인 수출금융지원으로의 전환이다.

둘째는 수출금융의 건당 대출규모 확대 내지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이다.

셋째는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여하는 간접지원방식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신용기관이 직접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그리고 향후 2~3년간 수출금융의 수요증가 추세를 살피면서 중장기과제로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입 금융상품 도입, 신용평가기법 및 리스크관리 기법의 개선, 그리고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제도 도입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절 서론

1. 연구 목적 및 무역센터 건립의 필요성

“무역센터의 개발 및 출범”에 관한 본 연구는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 측이 권고한 무역센터 건립의 당위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수출증진을 위한 무역센터의 역할을 명시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무역센터 운용에 관한 노하우를 도미니카공화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무역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 방안을 자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경제 위기 이후 도미니카공화국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88%인 반면, GDP 대비 경상수지는 연평균 -35.22억 달러(수출 약 72.8억 달러, 수입 약 141억달러)이다.¹⁰⁾ [그림 2-1]에서 보듯이, 이는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주력산업을 발굴하여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무역센터는 전시회를 통해 수출상

10)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

품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무역관련 교육시스템 및 전자무역통합시스템을 수출업체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수출량을 증대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도미니카 공화국은 무역 전시회 개최 및 운영, 무역인력 교육시스템, 그리고 전자무역통합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시설의 구축을 통하여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미니카공화국은 2011년부터 무역센터의 주요부문인 전시산업을 자체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투자청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전시산업은 상설 전시장의 부재, 전시시설 협소, 그리고 비효율적인 운영체제로 인하여 주요 국내·외 전시회가 1년에 10여 차례밖에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장 큰 규모의 국제무역 박람회로서 매년 개최되는 “씨바오(CIBAO) 박람회”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티아고시 외곽의 체육시설을 임대하여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무역업체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실무중심의 교육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못하며, 수출진흥을 위한 마케팅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기술 기반 또한 없다. 따라서 전시장소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무역센터의 건립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도미니카공화국은 무역센터의 건립에서 그치지 않고 그를 통해 홍보, 육성할 수출주력산업을 발굴하는 산업육성전략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무역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최적의 입지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접근성, 타 산업의 파급효과, 그리고 비용적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선정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해외 바이어의 접근이 편리해야 하며 숙박,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에 유리한 지역적 조건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추가적 제반시설 건설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무역센터를 건설하여 비용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현황에 근거해 무역센터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이외에도 도미니카공화국 내 무역센터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즉, 무역센터와 같은 인프라 시설과 수출, 그리고 수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여 무역센터건립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무역센터의 운영 주체인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무역센터 운영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무역센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무역센터 건립에 대한 노하우를 도미니카공화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도미니카공화국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무역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자금 마련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려 한다. 무역센터 건립에 필요한 자금 일부는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자금 조달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수출투자청이 서로 연계하여 부지비용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 체계의 설립까지 전반적인 일련의 과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회원사의 이용료, 회비, 그리고 무역센터의 임대료와 같은 추가자금조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절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 경제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미니카공화국의 당면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도미니카공화국 내 무역센터 건립의 타당성을 서술하고 한국의 성장 경험을 토대로 무역센터가 도미니카공화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무역센터의 성공적인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무역센터의 최적의 입지조건과 무역센터와 다른 산업과의 연계방안, 무역센터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무역센터를 건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2절 도미니카공화국 경제현황 및 특징

1.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현황 및 문제점

가. 최근 경제동향

도미니카공화국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2008년 세계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도미니카공화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수입수요 감소, 외국인 투자의 감소, 고질적인 전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2008년 경제성장률은 5%대, 2009년에는 3.5%로 크게 하락하였다. 결국 페르넨데스(Fernandez) 전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충격에 취약한 내수 시장의 안정과 강화를 목적으로 “경제 안정과 회복”이라는 경제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거시 경제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표 2-1〉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2012
GDP(US\$억)	457.1	467.1	516.5	556.6	589.5
1인당 GDP(US\$억)	4,797	4,815	5,231	5,538	5,762
경제성장률(%)	5.0	3.5	7.8	4.5	3.9
외환보유고(US\$억)	28.1	24.9	29.8	29.5	34.1
총 외채(US\$억)	93	84	104	100	106
D.S.R	11.3	12	10.6	10.4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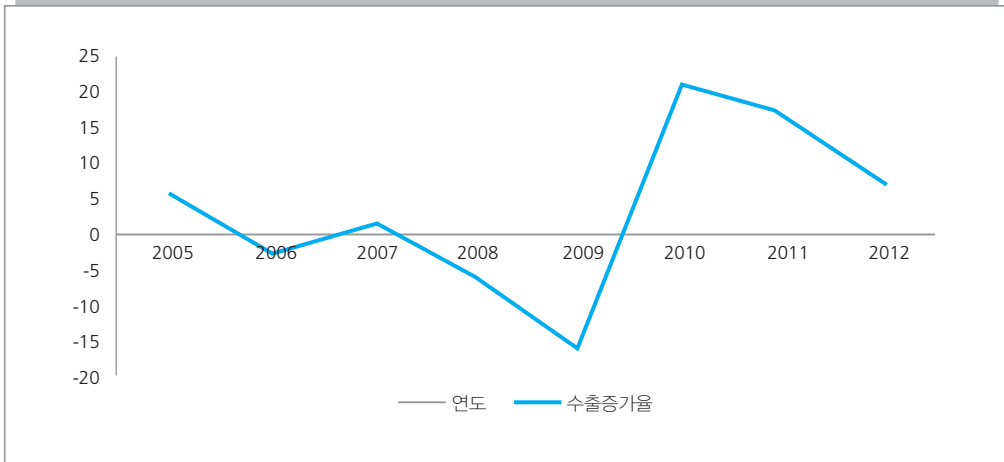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 이코노미스트, 세계통화위원회, 한국석유공사 종합, 2012

나. 수출 및 산업 동향

[그림 2-1]에서 보듯이 2010년 이후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증가율은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지대의 침체, 주력대체산업 선정 지연, 그리고 수출금융제도의 미비 등이 원인으로 평가된다. 1990년 후반부터 2000년에 대미 의류업이 도미니카공화국의 주력 수

출산업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이를 대체할 뚜렷한 전략 산업이 없는 실정이다. 2010년과 2011년에는 수출증가율이 평균 18.8%로 잠시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이는 2008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평가되어 여전히 도미니카공화국은 취약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취약한 수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이 시급하다.

[그림 2-1] 도미니카공화국 상품수출 증가율(기준: Free on Board, FOB)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

한편, <표 2-2>에서 나타나듯이,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수출품은 설탕 및 사탕수수, 커피 및 그 제조품, 담배, 카카오, 페로니켈 등이다. 이 중 커피, 카카오, 사탕수수 등과 같은 식료품에서는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은 이를 수출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표 2-2> 도미니카공화국 교역품목별 수출통계

(단위 : 1백만달러)

품목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탕수수	104.9	98.0	84.8	121.1	195.7	204.6
커피 원두	8.79	6.37	8.3	19.7	10.4	26.4
담배	6.2	14	11.1	11.9	11.2	14.9
카카오	57.9	81.0	92.6	164.0	187.3	183.7
페로니켈	709.9	1,099	492	412.5	-	290.1
자유무역지대	4,507	4,525	4,544	3,973.5	4,217.6	4,884.5
합계	5,394.6	5,822.3	5,232.8	4,114.3	4,622.2	5,604.2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

식품 산업과 더불어 도미니카공화국은 2008년 관광 국가경쟁력 육성계획(National Tourism Competitiveness Plan)¹¹⁾을 시행하는 등 관광을 집중양성 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카리브 해 연안 국가들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2010년 4백 만명이 이곳을 찾았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관광객 수는 2010년 3.3%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지난 10년간 평균성장률이 1%임을 감안하면, 평균 3~4%를 기록한 주변국들에 비해 관광산업의 성장세가 약함을 볼 수 있다.¹²⁾ 공항, 항구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있고 문화, 자연 관광 자원이 풍부함을 감안하면 도미니카공화국의 관광업은 그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무역센터는 전시장을 통해 고급관광 상품과 크루즈 관광 상품을 전시, 홍보하고 무역아카데미에서 관련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2. 도미니카공화국의 과제

세계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발전단계는 2단계(효율성주도단계)에 속하며 특히 인프라 구축 부문과 거시경제안정성 부문이 부족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의 내부통합 활성화 및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 또한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거시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재정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도미니카공화국의 국가경쟁력은 인근 중남미 국가들 중에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심지어 전세계 국가경쟁력 순위는 최근 2년 동안 15위 단계 하락할 정도로 국가경쟁력이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동력산업의 역할을 했던 의류산업이 199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으며, 수출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페로니켈의 수출 또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010년~2012년 동안 상품수출증가율(FOB)이 14% 하락하는 등 이들을 대체할 뚜렷한 전략 산업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도미니카공화국은 세계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언급한 인프라 부문을 확충하고, 수출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수출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9년 발표된 ‘2010~2030 국가발전계획(Estrategia Nacional de Desarrollo de la Republicana Dominicana 2010~2030)’에서 리오넬 페르난데즈 전 대통령 또한 수출확대와 국내 기업의 생산성, 국제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제 시장에서의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쟁력 제고를 경제 5대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¹³⁾ 동일한 맥락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은 정부 주도의 수출촉진정책 및 사업들을 토대로 적용 가능한 대안 및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은 상설 전시장, 정보기술기반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수출주력산업을 상대적으로 풍부한 식료품과 관광 상품으로 선정하면 무역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인프라 확충 및 수출증대 일환으로 무역센터를 건립하고 식료품과 관광 상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무역아카데미에서 관련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는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11) Estrategia de Competitividad Turistica de la Republica Dominicana,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1, No.1, 2008

12) Caribbean Tourism Organization, "Individual Country Statistics(2010, 2009, 2007, 2006, 2004)"

13) Estrategia Nacional de Desarrollo de la Republicana Dominicana 2010-2030 Titulo1 Capitulo1

한국종합전시장(COEX)이나 킨텍스(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KINTEX)와 동일하게 무역센터는 체계적인 무역교육시스템과 무역정보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적인 무역인력의 양성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탐색비용의 최소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무역센터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3절 무역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한국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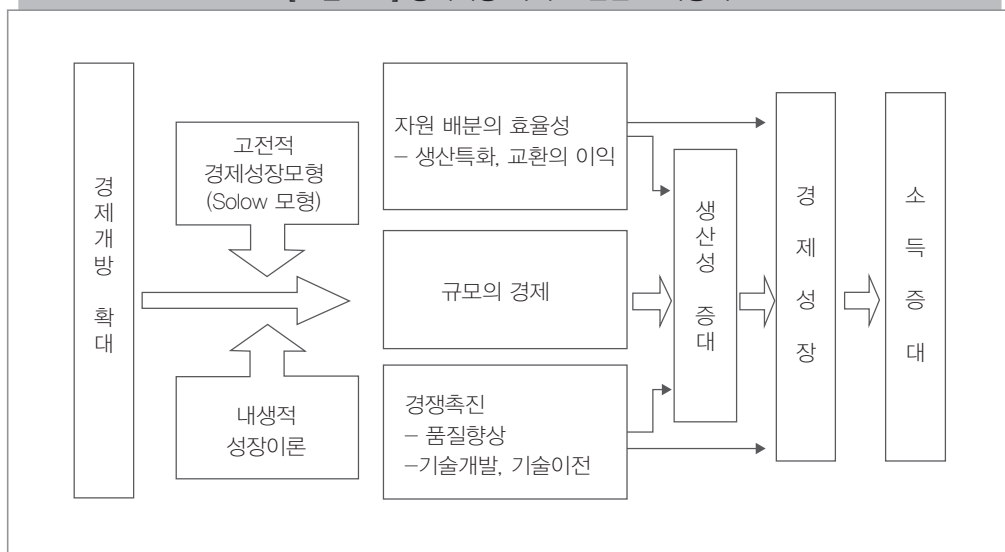
1. 무역센터, 무역 그리고 경제성장

가. 무역과 경제성장

1)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무역과 경제성장(소득)에 관련하여 다수의 기존 연구는 솔로우(Solow, 1956)의 신고전파 성장모형과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림 2-2]에서 보듯이, 솔로우(Solow)모형에서는 경제개방이 저부가가치의 생산 활동을 해외로 이전시켜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하며,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개방 및 무역을 통한 국제화로 기업들은 경쟁력을 높이고자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결국 향상된 기술진보는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기인하여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그림 2-2] 경제개방 확대에 의한 소득증대



2) 무역의 경제성장 경로

가)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

아담 스미스(Smith, Adam)의 절대우위론과 리카도(Ricardo, David)의 비교우위론에 근거하여, 각 국가들은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특화하여 교환한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유도하며, 이는 곧 소비자의 사회후생을 증대시킨다.

아담 스미스는 절대비용을 기초로 생산비 면에서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을 특화하여, 이를 수출하고 절대열위에 있는 상품들을 수입함으로써 국가 간의 무역이익이 생기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에 반해, 리카도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모든 상품이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에 전문화를 함으로써 각 국가 간의 무역 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각국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상품만을 생산 및 교환할 경우, 각국은 무역을 통하여 이득(gains from trade)을 얻게 되며 전 세계적으로 효율성이 확대된다.

나) 규모의 경제 효과

시장개방은 규모의 경제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역자유화는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가능하게 하여 초과이윤(가격-비용 마진)이 사라지는 반면, 조업하는 기업의 수가 감소하고 남아 있는 기업의 생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합리화(rationalization)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생산자들이 자유무역 이전과 비교하여 자유무역 이후 더욱 넓은 시장을 상대하게 되면 생산자들은 상품의 단위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생산성의 향상을 의미한다.

다) 경쟁촉진 효과

시장개방은 생산자들에게 더 넓은 시장을 제공하여 기회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경쟁의 심화라는 위협요인도 함께 제공한다.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경쟁력 제고효과 또한 누릴 수 있다.

나. 무역센터의 무역증진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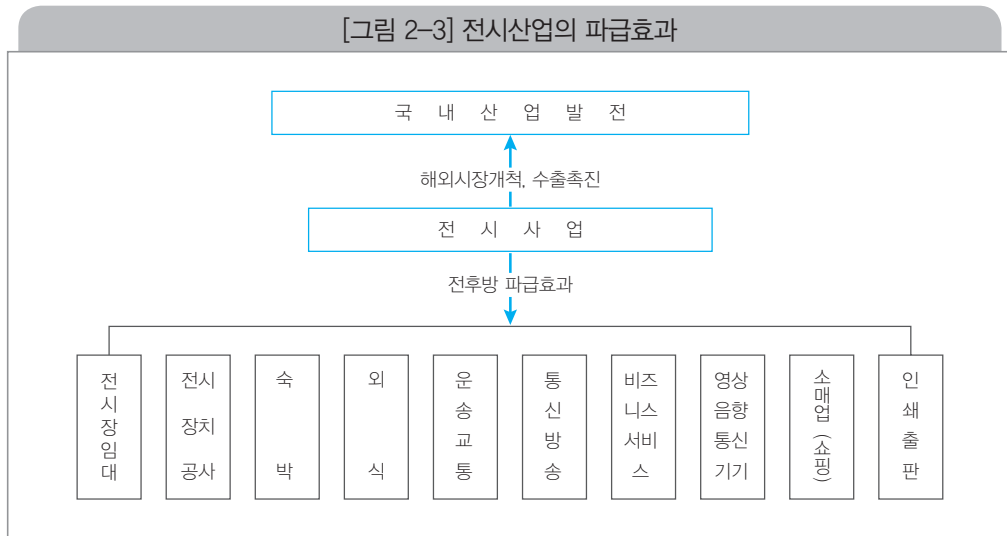
1) 무역전시산업을 통한 무역증대

무역전시산업은 제품, 기술, 정보가 결합된 통합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무역거래 및 정보비용을 최소화하고, 신상품 소개 및 최신정보 습득 등에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교역증진에 이바지하는 무역 인프라이다.¹⁴⁾ 이는 무역 대상국 및 기업의 정보를 한 장소에서 쉽게

14)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T/F팀, “전시산업 민관합동 결과보고서”(제1장 1. 전시산업 개요)

접할 수 있어 거래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 또한, 무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계약체결을 유도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증진에 도움을 준다.

더불어 [그림 2-3]에서처럼, 국제경쟁력을 갖춘 무역 전시회는 고부가가치를 지닌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전후방산업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개최지의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자료: 전시산업 민관합동 결과보고서

2) 무역정보 및 무역 컨설팅 제공

무역센터는 전시사업 외에도 무역 증진을 위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무역 절차를 돕는다.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역센터 내 별도의 무역정보센터를 개관하여 수출 가능 상품과 수출산업화 방안을 연구·분석한다. 특히, 무역정보센터는 수출 기업들에게 해외 시장의 통계 조사 및 관세, 세관 절차, 무역 규제, 자유무역거래 조항 등과 같은 무역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전담하고 있다. 이는 무역의 기회비용을 줄여주며 빠른 시간 내 수출증진효과를 극대화 해준다.

3) 무역인력 양성

무역인력이란 무역전문성을 기반으로 수출상담, 무역계약서·통신문 작성, 외환, 물류, 통관 전시 등 국내 기업들에게 수출입업무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력을 말한다.¹⁵⁾ 이와 같이 무역인력은 기업들의 수출업무와 직결되어 있다. 무역센터는 무역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무역인력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인력양성을 할 수 있다. 무역아카데미는 기본

15) "한국무역사", <http://ebook.kita.net>

적인 무역이론수업부터 실무교육훈련까지 다양한 교육방식을 통해 무역전문가를 육성한다. 이를 통하여 양성된 무역전문가는 추후에 실질적인 무역체결의 중간자로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4) 전자무역통합시스템 구축

전자무역은 사이버무역, 온라인 거래, 인터넷 무역, 무역자동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국가 간 거래인 무역행위의 본질적 업무에 정보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전자적, 정보 집약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무역활동을 의미한다.¹⁶⁾ 이는 기존의 오프라인의 무역업무 프로세스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수단의 변화이며 더불어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그에 따른 관련비용의 절감을 가져온다. 특히, 무역 비용의 절감은 국제무역의 고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전자무역을 통해 창출되는 신사업모델과 시장 유형은 수출경쟁력 제고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여 준다. 이러한 전자무역통합시스템의 구축은 무역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2. 한국의 경험

가. 한국의 무역진흥정책과 성장¹⁷⁾

1) 수출주도형 성장정책 및 무역규모의 성장

한국은 1960년대까지 만성적인 무역 수지 적자의 해소와 2차 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한국은 수출촉진 및 국제수지 개선, 중화학공업 건설 및 공업의 고도화, 과학기술 향상 및 교육시설 확충, 사회기초시설의 균형발전 등을 주요 목표로 한 무역진흥 정책을 수립하였다. 특히, 1960년부터 1970년 후반에 걸친 1, 2,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대외 지향적 정책의 결과,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무역 규모의 증가와 연평균 8.3%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특히, 이러한 대외 지향적 경제성장정책은 대내 지향적 정책(혹은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 시행했던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2) 무역규모의 성장

1965년~1980년 한국의 GDP는 연평균 8.3%, 무역규모는 3.3배 증가하였다. 이는 무역 확대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되며, 이 시기에 한국경제는 모든 측면에서 매우 급격한 양적 및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

〈표 2-3〉에서 나타나듯이, 1962년부터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난 1977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41.5%에 달하여 1962년 3,300만달러였던 수출규모는 1977년에는

16)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utradehub.or.kr>.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세계를 향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50년사", 2012(1.9.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이 뿌리 내리다)

100억달러에 이르렀다. 그 후 세계경제여건과 국내경기변동 등에 따라 한국의 수출규모는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1962년부터 2008년까지 명목 기준으로 약 7,600배 이상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21.5%를 기록하며 수출은 여전히 한국경제 성장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표 2-3〉 한국 무역의 주요 연도별 추이(1960년~2008년)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1962	55	34.1	422	33.4	-367
1970	835	34.2	1,984	8.8	-1,149
1977	10,046	30.2	10,811	23.2	-764
1985	30,283	3.6	31,136	1.6	-853
1986	34,714	14.6	31,584	1.4	3,131
1987	47,281	36.2	41,020	29.9	6,261
1988	60,696	28.4	51,811	26.3	8,886
1989	62,377	2.8	61,465	18.6	912
1990	65,016	4.2	69,844	13.6	-4,828
2000	172,268	19.9	160,481	34	11,786
2005	284,419	12	261,238	16.4	23,180
2008	422,007	13.6	435,275	22	-13,267

자료: 지식경제부, 한국무역협회 데이터베이스

3) 종합무역상사제도의 도입: 무역센터 설립

1970년대 무역진흥정책 중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1975년 종합무역상사제도의 도입이었다. 이는 수출기업들이 겪는 애로에 대한 타개를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수출시장개척, 해외시장 변화에 대한 전문화, 수출의 획기적 증대의 목적으로 발전하였다. 1980년대에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종합무역상사에 의해 수출이 크게 증대되자 중소기업의 수출에 대한 열기 또한 고조되었다. 이에 국영 수출진흥전담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국내 정보 체계의 확립, 시장개척의 강화, 신상품 개발과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창립 이래 20년 넘게 전시산업을 주관하면서 축적해온 운영 노하우를 통하여 1983년 재정적자 중인 한국종합무역센터를 인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시장개척기능과 전시기능과의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극대화하였다. 그 결과 1982년 11회에 불과했던 전시회수가 1985년 30회로 증가하고, 전시장 가동률도

1982년 25.2%에서 1986년 41.8%까지 증가하였으며,¹⁸⁾ 전시 가동률의 증가는 적자에서 탈피하여 흑자운영에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이처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한국종합전시장(COEX)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국내 전시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주도형 대기업 수출정책에서 탈피, 중소기업의 수출 육성을 통한 수출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부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더불어 공동 이익단체이자 민간기업인 한국무역협회(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도 무역업자들의 수출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해외시장 개척, 전문전시회 개최, 민간 통상협력, 무역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수출입의 중간자로서 한국의 무역제도를 개선하고 무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기여하였다. 더불어 무역아카데미를 통한 무역 전문 인력 양성, 인터넷 무역(E-Trade) 인프라 확충, 수출입 물류개선 및 하주권의 옹호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종합전시장(COEX)은 무역수지적자와 사회 인프라가 취약했던 60년대를 거쳐 70년대 후반 이래로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수출증진 및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일조하였다. 더불어 종합무역상사와 한국종합전시장(COEX)을 포함한 정부, 민간기관의 노력으로 1980년 -3.7%이던 GDP 성장률은 1985년 7%로 증가하였고, 경상수지는 1980년 -53.21억달러에서 1985년 -8.87억달러, 1989년 50.55억달러로 크게 개선되었다.¹⁹⁾

나. 한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무역센터의 역할 및 특징

1) 전시산업의 육성 및 무역진흥사업

1964년 4월 뉴욕국제박람회에 처음 참가한 이후로 한국은 다수의 국제적인 박람회에 적극 참가하여 견문을 넓히는 데 노력했으며, 마침내 1982년 국내에서도 국제무역박람회인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을 개최하는 성과를 보였다. 서울국제식품 산업대전은 국내식품 관련 기업들이 전시회를 통해 관련 바이어들과의 거래를 성사할 수 있게 도와주었으며,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표 2-4>에서 볼 수 있듯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은 개최 30년 후 참가업체가 약 17배 증가하였으며, 참가국 수는 6배로 증가하는 등 국제규모의 전문전시회로서 명성과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그림 2-4]과 같이, 1980년대 식품제조업 생산액이 9조 원이었던 반면 30년 후 약 4.7배 증가하는 등 국내에 국제무역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수출산업을 육성해 생산규모를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세계를 향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50년사", 2012(3.4. 전시사업의 활성화로 'Made in Korea'를 각인시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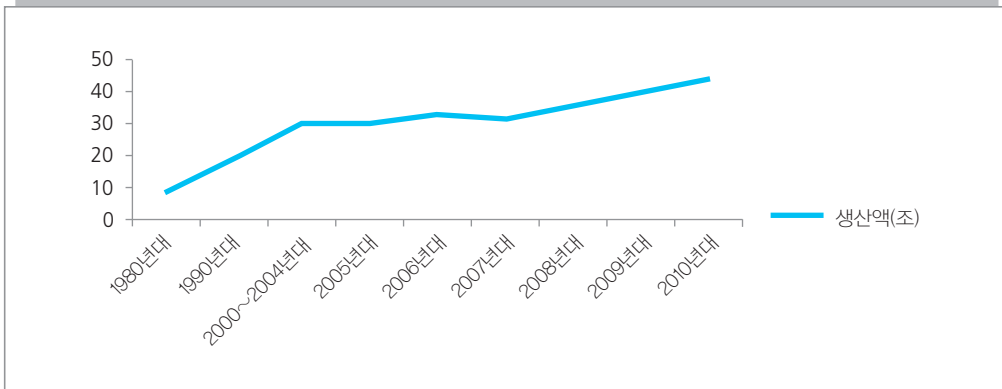
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세계를 향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50년사", 2012(3.3.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활로 모색에 앞장서다)

〈표 2-4〉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비교현황

구분	1982년	2012년	증가내용
전시면적(m ²)	4,896	108,049	103,153 (22배 증가)
참가업체(개)	84	1,450	1,366 (17배 증가)
참관객(명)	-	60,000	-
참가국 수	7	44	37(6배 증가)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사업계획(2012)

〔그림 2-4〕 국내 식품제조업 생산액 추이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사업계획(2010년)

또한, 한국의 무역센터는 해외지역에도 전시회를 개최하여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표 2-5〉에서 보듯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약 3,379개의 국내기업들이 해외전시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해외전시회를 통해 매년 총 계약액만 약 2억3,658 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국내 많은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과 더 나아가 무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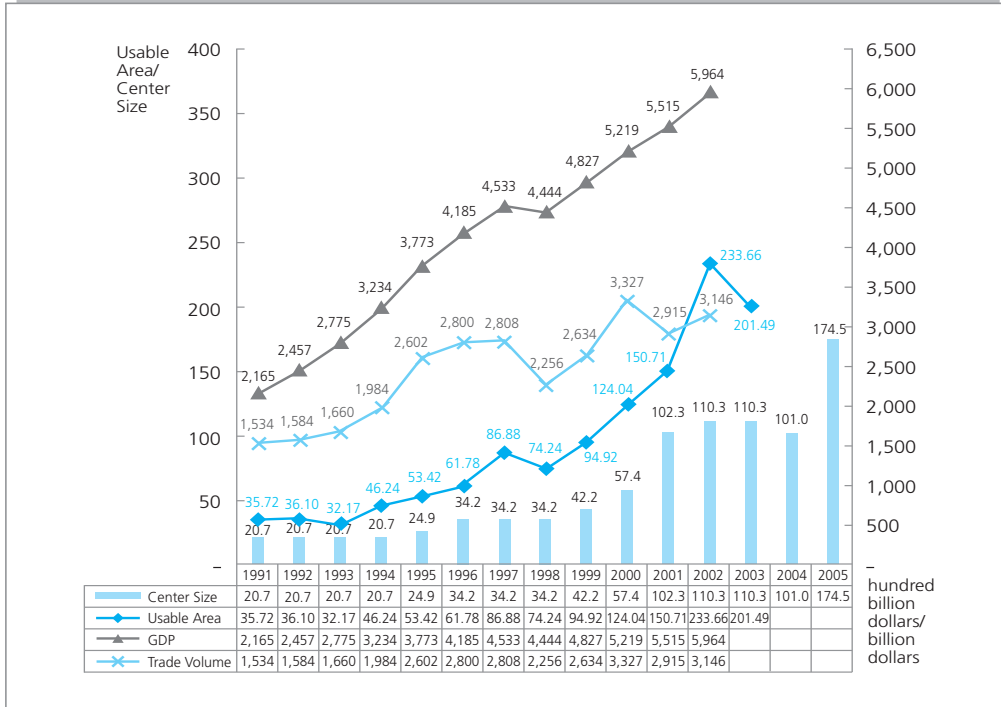
〈표 2-5〉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실적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횟수	171	182	189	182	119	117	150
참가업체 수	3,650	3,805	3,500	3,799	3,447	2,263	2,645
계약액(백만 달러)	2,370	3,343	3,682	2,534	2,257	1,900	1,300

자료: 지식경제부, "2010 지식경제백서"

종합하면 한국의 무역센터는 국제박람회 개최 및 해외전시산업과 같은 전시산업을 통해 한국과 한국상품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였으며,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그림 2-5]에서 보듯이, 실제로 전시장 규모 및 사용면적의 증가와 비례하여 한국의 무역규모 또한 증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02년도 GDP는 5,964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전시산업은 무역증진 및 국가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2-5] 한국 전시산업의 성장추세



자료: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국내전시장 수요예측 및 효율적 운영방안

2) 무역인력양성을 통한 무역증진

무역인력은 수출업무의 중간자로서 수출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현재 한국은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무역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이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온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은 진취적이고 벤처정신을 갖춘 청년을 선발하여 무역실무인력으로 양성한다는 취지 아래 구축되었다. 이는 무역실무 및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한국의 해외지사로 파견하는 등 국내기업의 수출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게다가, 2005년에는 교육훈련체계(Competency Bas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CB-HRD)를 개발하여 무역인력의 업무능력을 전문화시켜 국내기업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었다.

이에 근거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교육(석·박사 학위과정, 해외근무직원 현지 연수, 투자교육, 온라인 직무교육)을 편제하였으며 <표 2-6>처럼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 비중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표 2-6> 교육훈련비 비중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인건비 총액	교육훈련비 총액	교육훈련비 비중
2002년	35,605	1,039	2.91
2003년	38,182	1,280	3.35
2004년	39,275	1,402	3.57
2005년	40,831	1,719	4.32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영평가보고서(2005)

3) 전자무역통합시스템 구축

한국은 무역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자무역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왔다. 일례로 전자무역통합시스템(u-Trade Hub)과 전자무역거래 결제서비스(KOPS, KOTRA Online Payment Service)를 구축하였다.

우선, 전자무역통합시스템(u-Trade Hub)은 국내 모든 무역업체가 인터넷으로 수출상대기업과 무역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비용을 절감해주고,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등 경제적인 방법으로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준다. 이를 통하여 한국은 145억달러의 무역부대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79억달러의 수출증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²⁰⁾

더불어 2007년에는 전자무역거래 기반을 더욱 탄탄히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무역거래 결제서비스(KOPS)를 개발하였다. 이는 국내기업들이 인터넷으로 무역상대국과의 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로 국내 기업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편의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효율성이 매우 높은 시스템이다.

<표 2-7>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 전자무역거래 결제서비스(KOPS)를 도입한 이후, 수출상당액이 49.80%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자무역거래 결제서비스(KOPS)가 실제로 수출을 장려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2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utradehub.or.kr>

〈표 2-7〉 전자무역 이용 실적 및 수출 신장 기여도

구분	2007년	2008년	증가율
수출상담액(백만달러)	387	580	49.80%
전자거래무역 결제서비스(KOPS) 이용(건)	209	1,536	634%
전자무역거래 결제서비스 (KOPS) 기업당 평균 결제(건)	2.9	5.9	103.4%
현장상담 시	즉시 결제불가	즉시 결제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영평가보고서(2008)

다. 한국의 시사점 및 도미니카공화국 무역센터의 역할 제시

이에 본 절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무역센터의 역할 및 특징을 도미니카공화국 현실에 적합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적용하여 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무역센터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무역센터가 도미니카공화국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식품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무역아카데미 개설, 그리고 전자무역통합시스템 구축으로 구분하여 제안하려 한다.

1) 수출증진을 위한 식품, 관광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무역센터는 시장개척을 위한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수단인 전시산업을 통해 수출진흥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무역센터 건립을 통한 수출 진흥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산업육성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미니카공화국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식료품과 관광 상품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선정, 육성하여 결과적으로는 이를 동력삼아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매진하여야 한다.

우선, 주요 식료품인 설탕 및 사탕수수, 커피, 담배, 카카오 등과 이들을 이용한 가공품들의 전시를 통한 국내 기업 간, 더 나아가 해외기업들과의 거래실적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센터 인근에 생산, 유통 거점을 마련하며 상품의 이동거리를 최소화시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인근의 자유무역지대 등과 연계하여 해외 바이어에게 가공품의 가격경쟁력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해외 바이어의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상품의 국제적 수준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무역센터를 활용한 식료품 전시회는 도미니카공화국이 국제적으로 주요 무역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새로운 주요 무역국으로 부상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표 2-8〉 도미니카공화국의 교역품목별 수출 통계

(단위 : 백만달러)				
품목	2009	2010	2011	2012
사탕수수	121.1	195.7	204.6	200.9
커피 원두	19.7	10.4	26.4	34.1
담배	11.9	11.2	14.9	11.6
카카오	164.0	187.3	183.7	168.5
페로니켈	4.1	-	290.1	457.3
자유무역지대	3,793.5	4,217.6	4,884.5	4,987.9
합계	4,114.3	4,622.2	5,604.2	9,078.9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

〈표 2-9〉 도미니카공화국 5대 수출대상국(FOB 기준)

(단위 : 백만달러)				
순위	2011		2012	
	국명	수출액	국명	수출액
1	미국	1,485.3	미국	3,501.25
2	아이티	499.76	아이티	1,134.71
3	푸에르토리코	178.76	푸에르토리코	481.94
4	네덜란드	82.81	중국	342.47
5	중국	69.43	과테말라	130.29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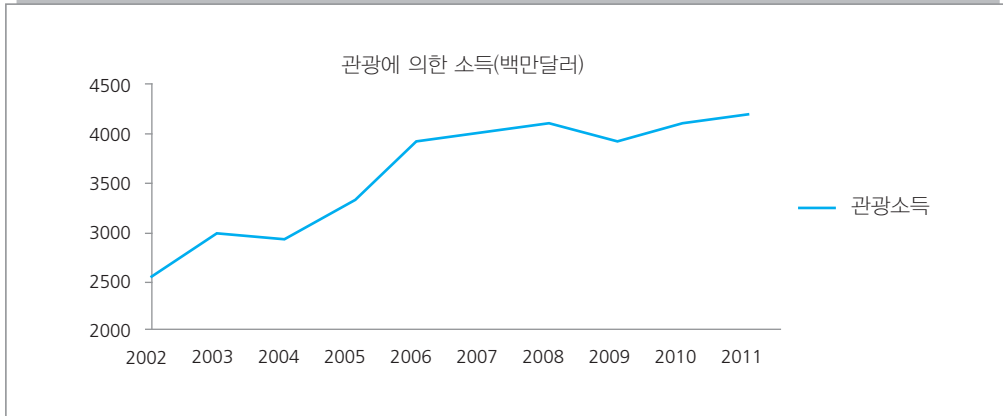
특히 한국 최초의 국내 전문전시회인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을 사례로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자체 식료품종합전시회를 개최한다면 중남미 우수의 식품대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도미니카공화국 식료품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여타 국가와 기업 교류의 장으로 삼는다면 긍정적 파급효과로 인해 국내 전시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수출성약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도미니카공화국의 식료품산업이 시장을 확장하고 주력 수출상품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자국을 홍보하는 행사에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품목별 전시회 및 전문 전시회를 함께 개최한다면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림 2-6]과 〈표 2-10〉에서 볼 수 있듯, 총생산에 대한 관광업의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관광업은 2012년 기준 도미니카공화국 총생산의 15.2%, 총고용의 14.1%, 그리고 총수출의 33.2%(외국인 관광객 소비)를 차지하며 제조업이나 농업보다 더욱 큰 비중을 나타냈

다. 따라서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관광산업을 무역센터와 함께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결과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2-6] 관광업에 의한 소득변화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관광청, '관광투자가이드'

<표 2-10> 관광업의 경제적 기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E
GDP 직접기여분	99.4	103.7	103.8	107.9	111.7
타 최종 영향분	121.4	126.5	126.8	131.7	136.4
GDP 총기여분	323.5	331.9	334.4	346.6	358.4
고용 총기여분	566.8	551.9	557.4	562.1	582.8

주: E는 전망치

자료: WTTC, "Travel and Tourism Economic Impact 2013 Dominican Republic"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역센터의 전시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식료품이나 관광 상품 뿐 아니라 다양한 전시품목을 비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시품목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수출 산업의 육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식료품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되,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수출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정보기술 산업으로의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산업구조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²¹⁾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산업인력의 육성과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요구될 것이다. 한국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적자본의 육성, 그리고 전시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수출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도미니카공화국 역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수출산업의 발굴과 전시산업의 활성화가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1) 세계법제센터, <http://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D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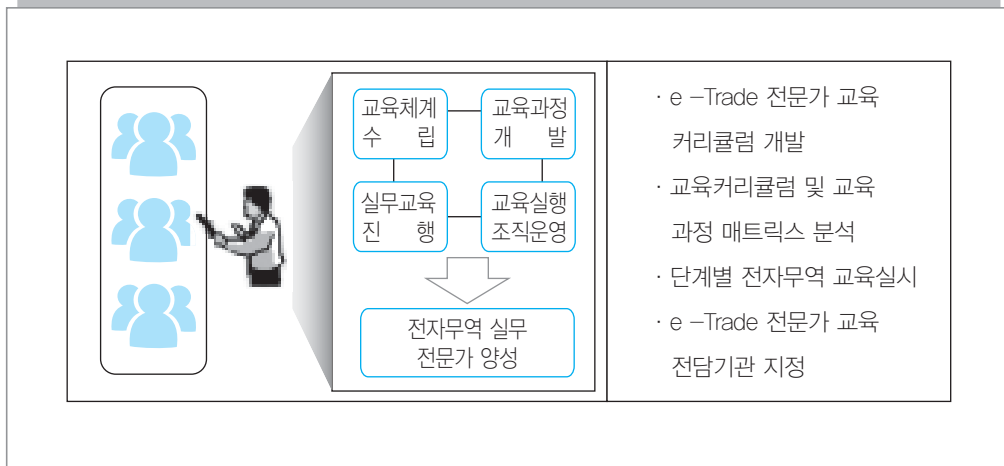
2) 무역아카데미 개설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의 무역교육은 경영, 물류, 판매, 신시장 개척, 혁신에 대한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교육이 세미나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커리큘럼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센터에 무역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무역전문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산학간 연계를 통해 실전에 필요한 무역 지식의 확충이 실전 교육과 함께 병행되어 실전형 전문전시인력의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무역실무개론, 무역관리제도, 외환제도, 관세제도, 해운업무, 해상보험, 지역별 해외시장 정보와 무역업무 연습 등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교육생들의 실질적인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무역외국어 연습, 현장 실습 등 다양한 양질의 교육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인력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전자무역 전문가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한다. 전자무역 전문가 교육 커리큘럼은 기존에 있던 교육과정 및 국제마케팅 교육을 강화, 개선하고 정보기술요소에 필요한 필수교육을 추가로 개설해야 한다.

그 다음은 단계별로 전자무역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무역실무 가능자 교육 및 전자무역 전문가 교육으로 나뉘서 교육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무역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역실무 가능자 교육은 해외영업 및 무역 경력이 있는 대상을 상대로 실시하며, 전자무역 전문가 교육은 그 대상을 무역실무 가능자로 한정함으로써 재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무역아카데미와의 업무 협력을 통해 보다 양질의 무역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정보도 공유함으로써 무역 관련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2-7] 무역 아카데미 개념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3) 전자무역통합시스템 구축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은 2009년 11월에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전자통관시스템은 수출입 포탈 시스템, 정보기술 인프라, 재해복구센터를 포함한 전산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존 5단계에 걸쳐 진행되던 세관업무 프로세스를 2단계로 줄여 통관업무 처리기간이 2일~3일에서 30분~40분으로 단축되는 등 관세 행정 업무의 효율화 및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전자통관시스템은 국가적으로는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가세수 증대에 기여하였고 국제적으로는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자통관시스템만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역과 국가 전반적인 전자시스템 도입은 부족한 실정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 증진을 위해서는 전자통관시스템뿐만 아니라 무역, 물류, 은행, 마케팅 등의 시스템과 그 포탈들을 아우르는 전자무역통합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 2010년에 한국 킨텍스의 전자무역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출입국 관리 시스템 구축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주관 전자정부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등 국가 전반의 전자시스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역센터에서 제공하는 전자무역통합시스템은 각각의 업체 및 정부유관기관들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통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 포탈의 모든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시스템 포탈은 각각의 서브포탈의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통합자료실을 설치하여 필요한 정보를 한 번의 검색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통합포탈 내에는 무역, 물류, 은행, 통관 업체 등 사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서비스의 설치도 필요하다.

전자무역통합시스템은 복잡한 수출입업무 전 과정을 자동화 서비스로 구현함으로써 무역부대비용 절감에 혁신을 가져오며 국제무역의 고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이로 인해 수입원자재의 원가 상승 방지와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무역통합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국가경쟁력 향상,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3. 성공적인 무역센터 운영을 위한 제안

지금까지 한국의 무역센터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역할 및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무역센터가 도미니카공화국 경제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즉,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왜 무역센터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도미니카의 무역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있어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3가지 사항인 최적의 입지조건, 무역센터의 건립과 함께 시행되어야만 하는 산업정책 방향, 무역센터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 및 투명성의 제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가. 무역센터의 입지조건

무역센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역센터의 단기적 성과 및 중장기적 성

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를 정하여야 한다. 무역센터가 들어서기 위한 입지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잠재적 해외구매자들의 접근 가능성(Accessibility)이다. 즉, 해외구매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무역센터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역센터의 가장 큰 목적은 해외 바이어들의 유치를 통한 도미니카공화국의 상품 홍보를 통한 수출의 증대에 있다. 상품의 홍보를 위해서는 해외 구매자들이 손쉽게 무역센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무역센터가 위치하게 된다면 해외 구매자들의 발길이 끊기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무역센터의 존재가 유명무실해짐을 의미한다. 높은 접근성을 위해서는 우선 무역센터가 들어설 지역의 교통 인프라(Transportation Infrastructure)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해외 구매자들의 편리한 입국을 위해서는 북미뿐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항공노선이 연결되어 있는 국제공항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공항에서 무역센터까지의 용이한 접근을 위해서는 지역 내 도로 및 대중교통이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무역센터 건립 지역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무역센터는 자국 상품의 홍보를 통한 수출의 진작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에 있어서는 해외 바이어 및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산업은 무역센터의 건설로 인한 이득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산업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무역센터가 건설될 지역이 관광산업에 대한 잠재성이 높거나 여가시설 및 여가 및 숙박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일수록 무역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파급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최적의 입지는 무역센터 건설에 있어 건설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무역센터 건설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뿐 아니라 전기, 수도, 통신시설 및 냉난방 시설과 같은 사회적 제반시설에 대한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만약 사회적 제반시설의 구축이 부실한 지역에 무역센터 부지를 선정한다면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에 지출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는 효율적인 이용이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제반시설의 구축여부 역시 무역센터 입지조건 중의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수도이자 캐리비안 지역의 최대 도시인 산토도밍고는 앞서 설명한 무역센터의 입지조건을 두루 갖춘 도시이다.

무엇보다도 산토도밍고는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의 중심지로서 그 어느 지역보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산토도밍고의 인구는 2013년 현재 약 225만명으로서 도미니카공화국 전체 인구의 25%가 산토도밍고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산토도밍고에는 APEC(Universidad Autónoma de Santo Domingo)을 비롯한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대학들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산토도밍고의 인적 인프라 또한 도미니카공화국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매우 풍부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풍부한 인프라는 무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최소화 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산토도밍고에는 도미니카공화국 대부분의 국내, 해외 기업들의 본사들과 정부 청사들이 위치해 있다. 도미니카 수출투자청(CEI-RD) 또한 산토도밍고에 위치해 있어 무역센터 건립 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1년 기준 110개의 기업이 산토도밍고의 자유무역지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누적 투자액은 총액의

28.29%를 차지하고 있다.²²⁾ 뿐만 아니라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산업단지인 에레라(Herrera) 공단과 하이나(Haina)공단 또한 산토도밍고 외곽에 위치해 있다. 이와 같이 산토도밍고는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 중심지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전기, 통신, 수도 등 사회적 제반시설의 구축이 가장 잘 구비되어 있는 도시이다. 따라서 산토도밍고에 무역센터를 건설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다른 산업과의 파급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어서 무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두 번째로 산토도밍고는 도미니카공화국의 타 도시와 비교하여 가장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해외 바이어 및 관광객들의 입국을 용이하게 하는 공항과 항구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주 공항은 AILA(Las Américas International Airport)로, 2012년 총 1,261,701명이 입출국을 하였으며 11,649편의 비행기가 운영되는 등 캐리비안 지역 중에서도 상위권의 활동을 보여준다.²³⁾ 또한, 산토도밍고는 총 5개의 항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관광 중심지에서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높다.²⁴⁾ 뿐만 아니라 산토도밍고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가장 뛰어난 대중교통을 제공 하고 있다. 2009년 시행을 시작한 지하철(Metro)은 현재 남-북, 동-서 2개의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차후 4개의 노선으로 확대 될 계획이다.²⁵⁾ 지하철과 더불어 개인택시, 버스, 오토바이 택시(Motoconcho), 헬리콥터 등 다양한 종류의 교통수단 활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대중교통은 무역센터를 방문한 해외 바이어 및 관광객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해외뿐 아니라 도심 내에서의 뛰어난 접근성은 산토도밍고가 무역센터 설립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장소임을 보여준다.

세 번째로 산토도밍고는 도미니카 리조트 타운으로 잘 알려진 폰타카나(Punta Cana)와, 해변가와 국립공원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관광지로서의 잠재성이 매우 높은 사마나(Samaná)지역과 도로로 2시간 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폰타카나 지역은 전 세계에서 약 240만명이 방문하는 세계 65위의 관광지로서 도미니카공화국 최대의 관광지이다. 산토도밍고와 이 두 지역은 버스와 항공편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무역센터 방문을 위해 산토도밍고를 방문한 사업가들이 관광을 위하여 손쉽게 폰타카나(Punta Cana)와 사마나(Samaná)를 방문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센터의 건설은 산토도밍고 뿐 아니라 무역센터와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폰타카나와 사마나 지역 역시 그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산토도밍고는 앞서 설명하였던 무역센터의 입지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도시로서 산토도밍고에 무역센터를 건설하게 된다면 효율적인 운용과 동시에 다른 지역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 Oficina Nacional de Estadística, "Dominicana en cifras 2012"

23) Central Bank of the Dominican Republic, "Aeropuertos Internacional Las Americas-Vuelos Regulares"

24) Dominican Republic Ministry of Tourism, "Santo Domingo Guide"

25) "El Metro and the Impacts of Transportation System Integration in Santo Domingo, Dominican Republic", A Report for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y 2010

나. 무역센터와 산업정책과의 연계

앞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무역센터의 건립은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그 효과를 최대화하여야 한다.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수출품은 설탕 및 사탕수수, 커피, 담배, 카카오 등과 같이 단순 농산물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무역센터에 전시할 수 있는 수출상품의 육성이 필요하다. 즉, 무역센터 건립을 통하여 수출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수출산업 육성정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무역센터의 건립과 함께 산업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무역센터가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역센터에 전시할 수 있는 식품산업을 동시에 육성함으로써 1982년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개최 후 30년간 식품제조업 생산액이 약 4.7배 증가하는 등 식품제조업 육성과 생산규모 확대에 박람회 개최가 큰 기여를 했음을 볼 수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도 무역센터의 건립과 동시에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생산물 중의 하나인 식료품 산업의 발전전략이 수립 시행되어야만 한다.

식료품산업과 더불어 도미니카공화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무역센터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경제에 있어서 관광산업의 기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발전 및 그에 따른 수입 증대는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은 캐리비안 연안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국가이다. 2010년 도미니카공화국의 관광객 방문자 수는 작년 대비 3.4% 증가하였으나 외국인 방문자 수 증가율의 추이를 보았을 때 지난 5년 평균 증가율은 약 0.83%에 불과하다. 그리고 총 관광객 중 사업을 목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2013년 기준으로 약 5.3%에 불과하다.²⁶⁾ 따라서 무역센터를 건립하여 컨벤션, 박람회 등을 시행함으로써 사업 목적 방문객을 증가시킨다면 도미니카공화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표 2-11>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 한국의 경우 전시컨벤션 참가자의 1인당 평균소비액 및 체재기간은 일반관광객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무역센터의 건립에 따른 전시산업의 활성화는 사업차 방문하는 관광객을 증대시켜 도미니카 관광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직 그 성장이 미미한 크루즈 산업과 고급관광산업 등을 휴양시설 건립을 통해 전시산업과 연계시킴으로써 관광산업의 동반 성장과 무역센터 주변지역의 숙박 및 기반시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표 2-11> 전시컨벤션 참가자 소비 및 체재기간

구분	전시컨벤션 참가자	일반관광객
1인당 평균소비액	US\$ 2,683	US\$ 1,368
평균 체재기간	6.4일	4.9일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참가자 실태조사(2000)

26) WTTC, "Travel and Tourism Economic Impact 2013 Dominican Republic"

나아가, 무역센터를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건립하고, 주변에 휴양 시설을 개발한다면 더욱 큰 관광산업의 발전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겨울 관광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크루즈 산업이 성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무역센터와 휴양 시설 건립, 운영이 관광산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휴양 시설을 무역센터 주변에 건립하게 될 경우 무역센터를 방문하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관광과 휴식의 기회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체류기간 및 소비 또한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휴양 시설 방문자에게 무역센터의 존재와 함께 진행되는 전시를 쉽게 홍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래 사업의 기회도 확보할 수 있다. 휴양 시설 내에는 숙박시설 및 쇼핑센터, 휴양 시설 등을 갖추어 한국의 한국종합전시장(COEX)과 같은 관광복합단지 형성을 꾀할 수 있다.

다. 무역센터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이상에서 제시한 도미니카공화국 무역센터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역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먼저, 투명성이 부족하여 일부 기득권층의 지대추구행위와 관료들의 부패,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 등이 발생할 경우 무역센터가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13년 도미니카공화국의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29점(100점 만점)으로 177개 국가 중 123위에 불과하다.²⁷⁾ 그러므로 도미니카공화국 무역센터의 건립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진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12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표한 세계 거버넌스 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효율지수는 214개 국가 중 136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²⁸⁾ 따라서 무역센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효율성 제고 방안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센터, 무역아카데미, 그리고 전자무역통합시스템 등 각각에 대한 명확한 운영 및 조직도를 구성하고 재정과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운용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 조직 모두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과 체계적인 조직도의 설립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발주 및 집행, 인·허가, 협력사 관리, 용역 관리 등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국제 가이드라인에 기반을 둔 운영을 통해 무역센터 건립 및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및 불투명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더불어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기반을 둔 외부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운영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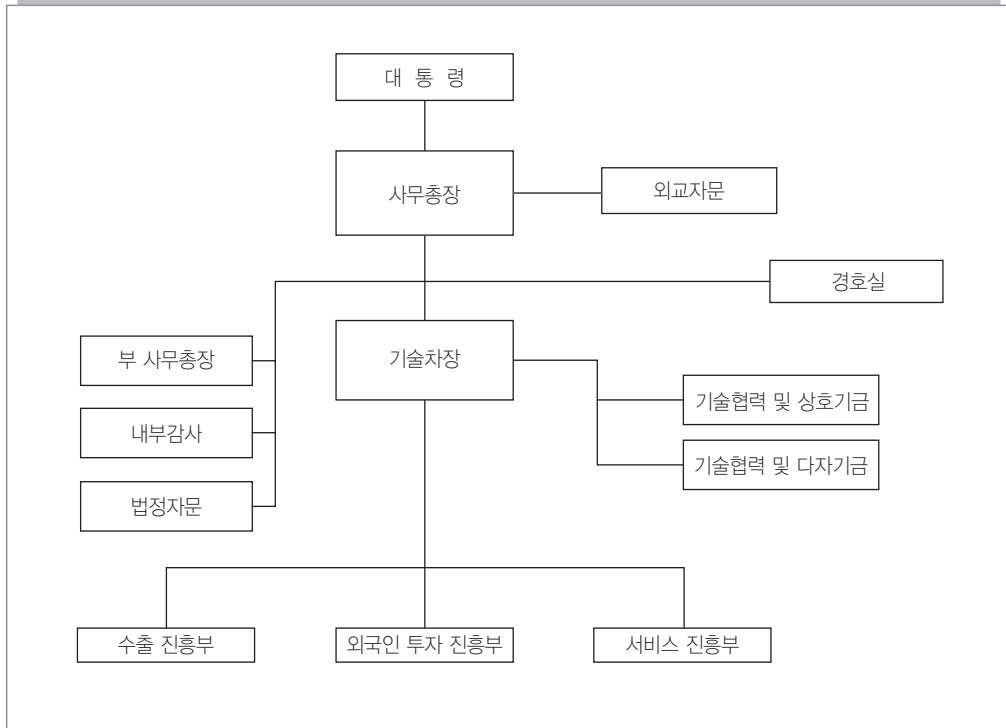
또한 새로 설립될 무역센터는 전시센터의 역할 뿐 아니라 무역 전문인력 양성 및 인터넷 무역(E-trade)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무역촉진 기구의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의 대외무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수출진흥센터와 투자진흥청의 역할을 통합하여 설립된 도

27) 국제투명성 기구, <http://www.transparency.org/cpi2013/results>

28) World Bank, "World Governance Indicator"

미나카공화국 수출투자청(CEI-RD)이다. [그림 2-8]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도미니카 공화국 수출투자청(CEI-RD)은 대통령 산하 기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무총장의 관리 하에 수출 진흥부(Export Promotion Department) 외국인 투자 진흥부(Foreign Investment Department), 그리고 서비스 지원부(Service Support Department)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8]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CEI-RD) 조직도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

도미니카공화국은 대통령중심제 국가로서 대통령은 내각 임명 및 구성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명권, 국가의 외교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미니카공화국의 권력은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정권이 교체 될 경우, 도미니카공화국의 무역 정책은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크게 변화되어 왔다.

따라서 무역센터를 정부 산하기관 하에 설립하게 되면 정권이 교체 될 경우 새로운 정권의 성향에 의해서 무역센터 업무의 종류를 비롯하여 범위, 역할 등 모든 것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무역센터 운영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켜 무역센터의 비효율적인 운용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무역센터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역센터를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CEI-RD) 외부에 설치, 그 관리주체를 도미니카 정부가 아니라 민간 무역진흥기구(Trade Promotion Agency)에서 담당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역센터의 포괄적 기능, 즉 무역아카데미(Trade Academy)역할, 인터넷 무역(E-Trade) 보급, 무역진흥센터(Trade Information Center) 등의 기능은 체계적인 무역진흥센터(Trade Promotion Agency)를 통하여 달성 가능한 과제들이다. 한국 킨텍스의 경우 소유권은 고양시에 있었으나 그 운영을 민간업체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게 이전함으로써 적자운영을 방지하고 그 전문성을 높일 수 있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10년간 고양국제전시장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이렇듯 무역센터의 운영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함으로써 정부 연계 부패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무역진흥기구는 운영에 있어 공인된 외부 전문기관에 아웃소싱 함으로써 그 전문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역센터 건립과정 및 정책수립에서의 정책이 투명하고 효율성이 확보된다면, 도미니카공화국의 다른 행정과정에도 정책투명성과 효율성이 확산되어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발전정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수립,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절 무역센터 건립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1. 소요예산 추정

아래 <표 2-12>처럼 총사업비는 6,243만달러로 무역센터 건설비(직접공사비), 무역 시스템 구축비용(기자재비, 개발비, 설치 및 운용비), 무역 아카데미 구축 컨설팅, 컨설팅 서비스, 교육훈련 등의 직접사업비와 제세공과금, 예비비, 사업관리비, 차관취급수수료 등의 간접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48.06%에 해당되는 3,000만달러를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부담은 총 사업비 중 3,242만달러이다.

<표 2-12> 총사업비 현황

구분	외화		현지화	소계	도미니카공화국	합계
	한국산	제3국산				
1. 무역센터 건설	8,755	1,481	8,764	19,000	25,474	44,474
1) 용지확보 및 기반시설	-	-	-	-	25,474	25,474
2) 건축공사	6,165	186	7,253	13,604	-	13,604
3) 기계공사	1,222	611	713	2,546	-	2,546
4) 전기공사	1,368	684	798	2,850	-	3,850
2. 통합무역정보 시스템	4,432	431	725	5,587	-	5,587
3. 무역 아카데미	88	-	-	88	-	88
4. 컨설팅 서비스	1,822	-	147	1,969	-	1,969

〈표 2-12〉의 계속

(단위: 천 달러)

구분	외화		현지화	소계	도미니카 공화국	합계
	한국산	제3국산				
5. 교육 훈련	346	-	-	346	-	346
직접 사업비	15,442	1,912	9,635	26,990	25,474	52,464
6. 제세 공과금	-	-	-	-	1,350	1,349
7. 예비비	1,712	202	1,037	2,950	4,555	7,506
8. 사업관리비 (직접사업비의 2%)	-	-	-	-	1,049	1,049
9. 차관취급수수료	60	-	-	60	-	60
총 사업비	17,214	2,113	10,672	30,000	32,428	62,428
대외경제협력기금 대비(%)	57%	7%	36%	100%		
총 사업비 대비(%)	28%	3%	17%	48.06%	51.94%	1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 제안방안과 기대효과

가. 국가지대 자금조달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역센터 건축에 필요한 총 사업비 중 도미니카공화국이 부담해야 할 액수는 3,242만달러이다. 특히, 전체 비용 중 17.5%인 1,870만달러는 용지확보비용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이 부담해야 할 금액 중 가장 큰 액수이다. 그러나 최근 도미니카공화국의 재정상황을 고려해보면 정부 자금으로 그 액수를 충당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CEI-RD) 연계를 통하여, 3개 기관의 공동 투자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킨텍스는 경기도, 고양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3자가 참여하는 합작프로그램, 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건립되었다.

아래 〈표 2-13〉처럼 정부의 역할로서 경기도는 킨텍스를 건립하는 주체가 되어 고양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전시장 건립단'을 구성 및 운영하였다. 또한, 완공기점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킨텍스를 주식회사로 전환시켜 투자자들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건설비용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가 전시장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조건 하에 전시장 소유권 및 운영비를 획득하는 등 이를 통해 건립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표 2-13〉 킨텍스 건립방안

규모		추진방식		참고
부지	100,000평	건립주체	경기도	- 99.4: 전시장 입지확정 - 99.9: 전시장 건립협약 체결 - 2000.2: 건립단 출범 - 2003.5: 착공 - 2005.4: 개관
건축규모	건축면적: 83,000평 전시장면적: 54,000평 부대시설: 29,000평	운영주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이중 1단계 사업규모는 전시장 면적 17,000평		건립방식	설계시공 일괄 입찰추진	
		부지확보	고양시 제공	

자료: 김성국, "제2컨벤션 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 2005

따라서 도미니카공화국은 한국의 사례를 토대로 무역센터가 설립될 도시와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CEI-RD)이 업무협약을 맺어 무역센터 부지를 확보한다면 용지확보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무역센터 소유권을 해당 도시에게 주는 대신 부지를 무상으로 획득하고, 완공 후 약 10년 동안 무역센터의 운영권을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CEI-RD)에게 위탁함으로써 초기 운영에 따른 적자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초기운영 후에는 특정 민간기업에게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CEI-RD)의 전문성과 운영방법을 전수하여 10년 후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나. 중소기업 회원사의 이용료 및 회비

〈표 2-14〉에서 볼 수 있듯,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기업은 2009년 기준 약 3,000여개로 이 중 98%의 기업이 연간 매출액 기준 1백만달러 이하의 중소기업들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수출 증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수출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표 2-14〉 도미니카공화국의 규모별 수출 기업 수

기업규모	수출 기업 수				
	2005	2006	2007	2008	2009
1억달러 이상	7	9	7	8	8
1천만달러 이상	70	72	81	77	78
1백만달러 이상	255	246	257	293	249
1십만달러 이상	542	481	699	666	563
1십만달러 미만	1,994	1,675	2,133	2,041	2,043
합계	2,868	2,483	3,177	3,085	2,941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CEI-RD)

도미니카공화국의 중소기업들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는 정보획득의 용이성, 교섭 비용 절감 및 상품, 시장 및 바이어에 대한 산재된 무역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혜택을 중소기업들에게 홍보하여 회원사 가입 및 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하면 이용료 및 수수료, 회비 등으로 무역센터 건립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는 무역정보이용료 36만원을 받고 제공하고 있다. 이 금액의 상대적 비율(74.27%), 환율 및 한국 내 물가상승률(10년간 평균 4.65%)을 고려하여, 도미니카공화국의 유사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가치를 384.07달러로 추정하였다. 회원 수는 도미니카공화국 전체 수출입 업체 수 11,726개사(수출업체 2,688개사, 수입업체 9,038개사)의 20%가 초기 회원이 되고 연 5.9%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면 대상기간 동안 전자무역통합시스템 사용 수입은 미래가치로 11,898,223달러, 현재가치로 6,858,708달러로 나타난다.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안으로는 회원사 회비를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하려면 신규 회원은 가입비 20만원과 연회비 15만원, 기존회원은 연회비 15만원을 내야한다. 2007년과 2008년도의 무역협회 회비수입은 70억원 정도였다. 무역협회의 수입 중에서 회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선이다. 도미니카공화국도 98%의 중소기업들을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회비를 중심으로 위에 언급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그에 부가적으로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회원사 서비스(할인혜택 및 무료 제공 서비스, 인력채용 등)를 시행한다면 회원 수가 늘어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²⁹⁾

다. 임대 수입

무역센터의 건설은 부가가치 유발, 고용 유발, 순 간접세 유발 등 다양한 총 산출유발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무 공간· 강의실 임대수입, 전시장· 회의실 임대수입, 전시장회의실 관리비 수입 등의 직접적인 편익을 가져온다. 특히, 전시장· 회의실 임대수입은 무역센터 운영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계획되어 있는 무역센터는 총 20,000m²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그 중 비즈니스 센터 600m²와 컨벤션 내의 IDC와 사무실 공간 900m², 강의실 1,150m² 등 총 2,650m²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의 사무실 임대료(월 12.6달러/m², 2008년), 임대료 상승률 10%, 할인율 12%를 기준으로 2013~2052년까지의 총 사무 공간 및 강의실 임대수입을 계산해 보면 미래가치로 285,497,049달러, 현재가치로 14,710,277달러로 나타난다.

또한, 전시장 및 회의실 임대 수입을 계산해 보기 위하여, 한국종합전시장(COEX)의 전시장 회요율단가 1.59달러(1일 m²당 기준)를 한국종합전시장(COEX) 인근 지역과 도미니카공화국 상업 지역 임대료와의 상대적 비율 74.27%를 적용하여 산출해 보면, 2013~2052년까지의 총 전시장 및 회의실 임대 수입은 미래가치로 1,318,167,305달러, 현재가치로 66,400,694달러로 추정된다(무역센터 내의 회의나 행사를 위해 임대될 수 있는 총 공간 13,000m²에 도미니

29) 한국무역협회 자료

카공화국의 요율단가를 적용하고, 전시장 가동률은 2013년에 30%에서 시작하여 매년 2%씩 상승하고 5년 후인 2018년부터 40%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한국의 경험으로 보면, 전시장 및 회의실 관리비 수입은 전시장 및 회의실 임대 수입의 약 20%에 이른다. 이를 도미니카공화국 무역센터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관리비 수입은 현재가치로 13,230,565달러, 미래가치로 263,571,275달러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도미니카공화국이 무역센터를 건립한다면, 2013년부터 2052년까지 사무 공간· 강의실 임대, 전시장· 회의실 임대, 전시장· 회의실 관리비를 포함하여 창출할 수 있는 총 임대 수입은 미래가치로 1,867,235,629달러, 현재가치로 94,341,536달러로 예상된다.

제5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 무역센터 건립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역센터는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전후방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무역센터의 건립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취약한 무역 인프라 시설 개선, 전문 인력 배양, 무역 운영 시스템 구축 등에 기여하여 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장하듯 무역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R.Solow 1963, AO Krueger, A.Berg 2003), 무역센터 건립을 통한 수출의 증대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도미니카공화국의 무역센터 건립의 필요성, 자금조달에 대한 방안, 그리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무역센터의 입지적 조건은 접근가능성,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그리고 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현재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시 박람회와 무역 아카데미는 적정하지 못한 위치 선정과 취약한 인프라로 인해 본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센터를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해외 바이어들이 접근하기 쉽고, 숙박, 관광산업과 같이 타 산업의 연계 육성이 용이한 지역에 설립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비용의 효율성을 위해 제반시설의 구축이 부족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무역센터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식료품산업과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주력산업이었던 의류업이 쇠퇴하고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페로니켈의 수출 또한 정체된 상황이다. 따라서 무역센터를 통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비교우위를 가지는 식료품을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전시하여 수출 증진의 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식료품 산업 전시와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해외 바이어로 하여금 한 곳에서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의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 이는 결국 도미니카공화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무역센터의 전시 확충에 따른 해외 바이어의 방문은 결국 현재 도미니카에 부족한 사업 목적의 관광을 확대시키고 해당 지역의 숙박시설과 기반시설의 확충에 도움을 준다. 무역센터와 함께 휴양시설의 접근가능성이 좋은 지역에 설립함으로써 사업 목적 관광객의 증대와 그들의 체류기간 연장, 그리고 수출상품 홍보기회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역센터 건설은 수출주력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무역센터는 무역 아카데미를 통한 무역 인력 양성, 전자무역통합시스템을 통한 무역절차의 개선 등의 역할도 담당한다. 먼저 무역 아카데미는 무역업 종사자들에게 폭넓은 교육 과정과 무역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수출기업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이바지한다. 또한, 차세대 무역 전문가를 양성하여 자국의 무역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더불어 무역센터는 전자무역통합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무역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제반비용을 절감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센터의 역할 실현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의 투명성과 효율성 지수는 모두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무역센터, 무역아카데미, 그리고 전자무역통합시스템 각각 운영시스템과 조직도의 체계적인 구성을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투자진흥기관(Trade Promotion Agency)의 설립을 통한 공정한 재정운용과 운영방안도 마련하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이 방지된다면 도미니카공화국은 더욱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무역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특히, 무역센터 건립에 필요한 자금 총 3,243만달러 중 한국의 대외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조달이 가능한 3,000만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대한 조달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대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머지 자금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청(CEI-RD)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3개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무역센터를 건립 및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외에도 무역통합시스템을 포함한 회원사의 이용료, 수수료 및 회비 그리고 전세, 사무공간을 통한 무역센터 임대료 등의 추가자금 조달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역센터의 개발 및 출범”에 대한 본 연구는 무역센터 건립의 당위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을 수립하는 도미니카공화국 의회와 고위공무원들을 설득해 실질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 내에 무역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논리적 타당성을 제공한다. 본 연구가 제시한 무역센터 건립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은 한국이 제공하기로 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이외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영평가보고서”, 200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사업계획”, 2012.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세계를 향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50년사”, 2012.
-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 자료, 2012.
- 전시산업발전 테스트포스,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 2009.
- 전시산업경쟁력강화 T/F팀, “전시산업 민관합동 결과보고서”.
- 지식경제부, “2010 지식경제백서”, 2010.
- 한국수출입은행, “중미통합체제 8개국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Country Report 2005-4, pp.127.
-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국내전시장 수요예측 및 효율적 운영방안”, 2003.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utradehub.or.kr>.
- 김성국, “제2컨벤션 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 2005.
- “한국무역사”, <http://ebook.kita.net>.
- 한국무역협회(KITA), <http://www.kita.net>.
- 도미니카공화국 수출투자진흥청, <http://www.cei-rd.gov.do>.
- 세계법제센터, <http://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DM>.
- 국제투명성 기구, <http://www.transparency.org/cpi2013/results>.
-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I.POV.GINI>.
- Caribbean Tourism Organization, “Individual Country Statistics(2010, 2009, 2007, 2006, 2004)”.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2014”.
- World Bank, “World Governance Indicator”.
- Estrategia Nacional de Desarrollo de la Republicana Dominicana 2010-2030
Titulo1 Capitulo1.
- Estrategia de Competitividad Turistica de la Republica Dominicana,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1, No.1, 2008.
- WTTC, “Travel & Tourism Economic Impact 2013 Dominican Republic”.
- Dominican Republic Ministry of Tourism, “Tourism Investment Guide”.
- Oficina Nacional de Estadistica, “Dominicana en cifras 2012”.

Central Bank of the Dominican Republic, “Aeropuertos Internacional Las Americas-Vuelos Regulares”.
Dominican Republic Ministry of Tourism, “Santo Domingo Guide”.
“El Metro and the Impacts of Transportation System Integration in Santo
Domingo, “Dominican Republic”, A Report for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y 2010.